

#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김병준(\*\*) · 천정환(\*\*\*)

## 목차

1. 서론
2. 기술통계로 본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 양상
3. 한국 현대문학 연구 도피 모델링
4. 새로운 현대문학(사) 연구의 지향과 가능성
5. 결론–남은 과제

## 1. 서론

### 1) 문제의식

‘학문 생태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2019년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대효과와 ‘(학령) 인구 위기’ 때문에 한국 대학은 더욱 강화한 공간으로 변하고, 이같은 위기는 전부터 주로 인문학 분야에 전가되고 있었다. 학문적 위기는 개별 학문의 방법론이나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듯 ‘문사철’이라 약칭되는 대학 인문학의 몇몇 분야는 이미 그런 일을 겪어 재생

〈표 1〉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일반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자 수.  
(교육대학원은 제외)

	계		석사		박사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언어학	46	31	21	13	25	18
국어·국문학	1,101	874	866	709	235	165
일본어·문학	137	109	114	93	23	16
중국어·문학	282	220	234	185	48	35
기타 아시아어·문학	21	13	20	12	1	1
영미어·문학	504	413	401	322	103	91
독일어·문학	15	14	13	12	2	2
러시아어·문학	27	21	26	20	1	1
스페인어·문학	17	14	16	13	1	1
프랑스어·문학	42	33	41	32	1	1
기타유럽어·문학	22	12	22	12	-	-
교양어·문학	237	208	214	195	23	1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산 불능의 상황에 처했다. 〈표 1〉에서 보듯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서어서문학, 노어노문학 분야의 대학원 졸업자(특히 박사)는 손을 꼽을 정도이다.<sup>1</sup> 이제 외국 어문학과는 ‘유럽 지역학’이나 ‘문화학’으로 이미

\* 이 글은 2019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국어국문학과와 반교어문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디지털 전환과 미래 한국 인문학’(2019.12.13~14) 발표문 “토馥모델링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지형 변화”를 수정·보완해서 작성된 논문임.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수행하였음.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교육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 의하면 2018년 전국의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한 학생 수는 902명이다. 이때 ‘독일어·문학’은 유럽학부(독일 언어문화전공), 유럽학부(독일어전공),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화전공), 독일언어문화 학과, 독일언어문화전공 등을 의미한다. 그외 최민숙, 「중국과 동유럽·남미 독일어문화이 눈부시게 성장했을 때—제13회 세계독어독문학회(IVG)에 다녀와서」, 『교수신

〈표 2〉 지난 10년간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문화학 관련 학부 및 대학원 입학 졸업자 수의 변화

연도	국어, 국문			연도	영미 어문학			연도	문화 · 고고 · 미술사		
	학부 입학	석사 졸업	박사 졸업		학부 입학	석사 졸업	박사 졸업		학부 입학	석사 졸업	박사 졸업
2008	4055	542	174	2008	6734	483	88	2008	1043	330	28
2013	4827	859	210	2013	7,686	438	96	2013	1413	513	86
2018	5610	866	235	2018	7,746	401	103	2018	2822	722	106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바뀌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학 수요나 동·남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따라 ‘국어국문학’이나 아시아권 어문학 일부 분야에서는 학위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문학 교육과 비평은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이미 아니다.

예컨대 〈표 2〉에서 보듯 2018년 ‘국어·국문학계’ 학부 입학자는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줄지 않고 외려 늘었다.<sup>3</sup> 그리고 ‘국어·국문학’은 대학원 졸업자 수에서도 압도적이다. 다른 어문 계열 학과는 물론 ‘영어·영문학’에 비해서도 거의 2배나 된다. 주로는 유학생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문학 교육 수요의 증가와 학과 통폐합 때문이라 보인다.<sup>4</sup> 이처럼 ‘국어국문학’의 재생산 구조도 계속 변해가고 있다. 본격

문』, 2015.09.16. 등을 참고.

- 2 교육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major/FunivMajorView.do?SEQ=69#tab3>
- 3 이 통계에서 ‘국어·국문학’에는 서사창작과, 미디어문학전공, 문학영상학과, 글로벌 한국학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등 국어국문학과에서 분기해간 학과 입학생을 포함시켜 두었다. 학과의 계열 구분은 「학과(전공)분류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른 것이다.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알림·서비스” 메뉴의 “자료실”에 있다.
- 4 이에 비해 영미·어문학과는 학부 입학생 수는 7,746명으로 국어·국문학은 물론 다른 어문계 학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석·박사 졸업생 수는 국어·국문학에 비해 적다. 그 수도 차츰 감소해왔다.

적인 의미의 연구자를 길러내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은 전국에서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이같은 큰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해보려 한다.

이 논문은 2000~2019년에 발표된 전국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출된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1,528편의 서지데이터를 통해 지난 20년 간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sup>5</sup> 결론의 하나를 미리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 분석해본 결과,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어국문학과’의 틀 안에서 써진 박사논문 중에는 새로운 경향의 연구는 그 자체로는 소수며, 전통적인 의미의 연구 주제·방법이 대종을 차지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가 중심의 작가론 연구는 큰 비중을 갖고 있었다. 저절로 이런 물음이 떠오른다. (대가 중심의) ‘작가론’은 어떤 의미를 가진 지식인가? 이 지식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떤 지식체계와 문학문화의 산물인가? 아마 이같은 경향은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박사논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것일 수 있다. 주지하듯 박사논문이란 오랜 기간의 연구와 집필 기간이 필요하거나와, 석사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등 다른 연구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제도친화적이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문학 분야 연구 동향에 대해 ‘연구의 내용적 경계는 넓어졌으나, ‘국어국문학’의 제도적 형태와 외적 규범은 상대적으로 덜 변했다’<sup>6</sup>고 여전히 말할 수 있겠다. 변화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콘텐츠

5 따라서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의 현대문학 교육 관련 논문과 문화콘텐츠학과, 비교문학과, 동아시아학과 등 인접 학과의 현대문학 관련 논문은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6 백두현 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영남지역 문학어문학 연구인력양성사업단 편,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학이나 한국어교육 과정의 신설 같은 2000년대의 큰 변화처럼 변화의 요구는 대부분 국어국문학과 바깥의 다른 학과의 설치나 HK, BK 같은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의해 흡수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대문학 연구’는 마치 외부의 압력에 대한 완충판 같은 역할을 하는 국어국문학과 안에 역설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1,500여 건에 이르는 작지 않은 분량의 양적 데이터를 통해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다. 시론적인 의미도 갖는 이 논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디지털인문학’의 방법을 적용·실행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일종의 메타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연구 동향 분석’이다.<sup>7</sup> 이를테면 이는 문학사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을 선취한 것으로 잘 알려진 프랑코 모레티가 시도한 ‘크게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라든가 한국 현대문학 연구계에서 이재연·김병준 등이 시도해온 네트워크 분석 등과는 방법과 소재가 다르다. 전자는 서구의 문학작품을 장기지속적 사회·문화 변동 속에서 다시 읽어 새로운 문학사 서술을 기도한 것이며, 후자는 주로 문단사의 사실을 개념화와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다시 규명한 것이다.<sup>8</sup> 이같은 선구적 시도가 있지만 다른 분야처럼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아직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의 적용은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학사의 많은 데이터로써 어떤 주제와 소재

7 이같은 연구는 공학 분야와 문헌정보학, 사회과학 등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8 김병준·전봉관·이원재, 「비평 언어의 변동—문예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995~2015」, 『현대문학의 연구』 6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이원재, 김병준, 전봉관, 「작가-비평가 관계와 비평가의 구조적 위치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2010~2015」,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전봉관, 김병준, 이원재,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 『현대소설 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참조.

를 개척하여 무엇을 밝힐 것인가? 그래서 문학(사) 연구를 어떤 앎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은 관건적이고도 논쟁적인 일이 된다.<sup>9</sup>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 연구를 행한 방법과 절차를 밝혔다.

둘째,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의 변화 추이와 현재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자 한다. 문학사 연구가 곧 문학사다.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정체성을 지닌 연구자들이 어떤 작가·작품 또는 문학문화사적 사실에 관심을 더 많은 기울여, 어떤 비평적 통찰과 역사적 안목을 동원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문학사의 여러 사실과 작품을 어떤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여 ‘현대’(또는 ‘현재’)에 대면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자체로 ‘변화’와 시간을 품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멸하시피 했던 카프 문학 연구가 2010년대에 들며 부활한 일, 김수영(문학) 연구가 2010년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차지한 일, 폐미니스트 관점에서 다시 한국 문학사를 쓰고자 하는 의지가 증폭된 일 자체가 새로운 한국—현대—문학사 아니겠는가? 이는 변해온 연구동향은 문학사가 ‘선별·해석·배열되어온 사실의 집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그것은 ‘해석과 사실의 공진화 과정’으로서의 한국 문학사의 부분이다. 연구동향 연구는 ‘연구의 연구’로서 모든 학문 분야들에서 행해지는 집합적 자기분석이자 ‘자기 역사 쓰기’인데,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집합적 자아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20년 간의 변화 중에서 문화론적 연구나 폐미니즘 봄 같은 눈에

<sup>9</sup> 디지털인문학과 양적 분석에 관한 문학, 역사학 등 분야에서의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는 참조 (이재연·송인재 외,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띄는 적극적이며 의식적으로 추동된 변화가 과연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를 (어떻게) 바꿨는지 (또는 못 바꿨는지) 살피고 새로운 문학사 연구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셋째, 다른 ‘동향’ 데이터 분석이 그러하듯 집적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해석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에 관련된 어떤 공통성을 위한 제언을 하려는 의지와 연관된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실이 현대문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통성’(commons)의 추구에 대한 일환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는 연구 주제나 해석지 뿐 아니라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함께 처한 제도적·물질적 곤란에 관해서이기도 하다.

‘한국(현대)문학’의 한 축은 20세기에 걸쳐 정립돼온 근대적 학문 방법론과 진리체계를 고수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또 고착적으로 확인해간다. 반면 다른 축들은 일면 내재적인 동요와 모순 때문에, 그리고 이질적이거나 외생적인 다른 학문이나 방법과 계속 접속하며 유동적 ‘현재성’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내고 ‘현실’ 속에 한국 현대문학 연구를 존재하게 한다. 지난 20년 간 한국 현대문학 연구는 문화론적 연구나 새로운 현실을 주요한 엔진으로 삼으며 현실과 접촉하고 운동해왔다.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동력이나 외부의 힘이 주어질 것인지?

## 2) 연구 방법

### (1) 데이터 분석 목적과 활용 알고리즘

본 연구가 수행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가늠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국내 인문학 학술계에서 국어국문학은 가장 큰 영역이며 그중 현대문학 전공은 장르/주제/시대에 따라 폭 넓은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문화학, 젠더연구 등 다른 학문과의 간학제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대문학 연구는 그 자체로 한국 인문학 전체의 동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니와, 학문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그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의 많은 디지털인문학 연구는 공기어 분석(Co-occurrence)이나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주요 분석 알고리즘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우선 현대문학 박사 학위 논문 서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정제하여 구축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아카이빙(Archiving)이라고 불리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쏟은 후 정리된 데이터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적합한 알고리즘이 토픽 모델링이었다. 향후에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 뿐만 아니라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분류 모형이나 사회연결망 분석 등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및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파이썬 코드와 형태소 분석에 필요한 인명 및 문학 용어 사전 등의 파일

은 일단 파이썬 코드 중심으로 깃허브(github)<sup>10</sup>에 공개한다.<sup>11</sup>

## (2) 데이터 수집과 전(前)처리

저자들은 1차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분야 박사 학위 논문 서지정보를 수집했다. 박사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박사논문이 ‘학술장’과 연구자들의 연구생애에서 가진 대체 불가능한 무게 때문이다. 박사논문은 한 연구자의 정체성과 결부될 수 있으며 학위 배출 기관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제도로서의 연구’의 의미를 구현하면서도 연구 경향의 변화를 나름 민감하게 보여주는 적실한 자료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표 3〉과 같이 진행했다.

〈표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

국어국문학 서지 정보 수집	현대문학 분야 논문 추출	누락데이터(missing data) 확인 및 추가 데이터 수집
RISS—학위논문 데이터 베이스 활용	서지분류 체계 및 어학 및 고전 개념어로 현대문학 분과 분류	국회도서관 및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위논문 파일 확인 후 데이터 보충

10 <https://github.com/ByungjunKim/DDMKL>

11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분이 ‘개방’과 ‘공유’를 표방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근본 입장에 맞게 저자들의 연구 과정과 결과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주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선 깃허브에 공개한다. 그런데 깃허브는 코드 및 단순 파일 확인만이 가능하여, 전처리가 완료된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업로드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웹에서 바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위키 포함)로 구축하는 일을 준비 중이다.

### 가) 학위논문 서지정보 추출

수집에는 1차적으로 한국교육정보학술원(RISS)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 상세검색 템 내 ‘출신학과’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출신학과 검색창에 ‘국어국문 OR 국문’을 입력해 석박사 학위논문 21,858건<sup>12</sup>의 서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지정보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논문의 제목, 저자, 학위정보, 주제어, 초록, 출판연도 등의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때 일일이 수동으로 상세 서지정보 내보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수만 건의 서지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였다.<sup>13</sup> 한국교육정보학술원사이트(<http://www.riss.kr>)에서 수집한 서지정보 양식의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박사 학위 논문 서지정보 예시

서명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readers and reception of modern Korean fiction
저자	천정환
발행사항	서울대 대학원, 2002
형태사항	256, iv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수록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2002
KDC	813.6 4
DDC	895.7 20
발행국	서울
출판년	2002
주제어	한국 근대 소설 독자, 소설 수용양상, Modern Korean fiction
소장기관	국립중앙도서관(011001), 서울대 중앙도서관(211032)

12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김병준이 맡아 진행했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모두 수집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박사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3 셀레늄(Selenium) 패키지를 활용해 자동으로 목록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었다. 셀레늄은 웹브라우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반복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패키지이다. txt, ris, xls 등 여러 확장자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범용성이 높은 엑셀 확장자(xls)를 활용하였다.

#### 나) 현대문학 분과 논문 추출

또 수집한 서지정보에서 ‘현대문학’ 분과 논문만 추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테면 제목·주제어·초록 중 어학이나 고전문학 및 국어학 분야 연구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어들(예: ‘한시’, ‘통사론’, ‘음운’ 등) 가 포함된 경우 대상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서지분류 체계인 ‘DDC’, ‘KDC’ 번호가 있는 경우 400번대인 국어학(언어학) 연구논문을 제외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준을 통과한 논문 중 일일이 제목과 주제어, 초록 및 목차 등을 두 연구자가 읽어 다른 분과학에 속한다 할 수 있는 논문은 제외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528건의 박사학위 논문을 추출 할 수 있었다.

#### 다) 누락(missing) 데이터 확인 및 추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의 난점은 많았다.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서지데이터를 확보한 후에도 추가 데이터 수집 과정이 필요했다. 학회지 논문과 달리 박사논문은 대학별로 양식이 체계화·표준화되지 않은 큰 문제가 존재했다. 학회지 논문과 달리 어떤 대학원의 학위논문 양식에는 국문 초록이나 주제어(keywords)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RISS 의 정보의 한계로 초록, 주제어, 목차 등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서지 텍스트 분석의 대상은 논문의 ‘제목’과 ‘목차’로 정했다. 원래는 해당 연구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잘 나타내는 주제어나 국문초록도 포함하려 했으나, (특히 2000년대의 논문에서) 주제어는 571건의 논문에서, 국문초록의 경우도 651건의 논문에서 누락이 있었다. 해

당 논문의 원본 PDF 파일을 확인한 결과, 논문 발표 당시 어떤 대학의 학위논문 양식에는 주제어 혹은 국문초록이 없거나, 또는 이같은 서지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채 RISS에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RISS 서지 데이터 상에 목차가 누락된 400여 건의 논문의 원문을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sup>14</sup>나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확인 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저자가 원문 공개를 거부하거나 해당 대학 도서관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경우 2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논문의 목차를 확보할 수 있었다.

### 3) 대상 시기와 분류

2000~2019년 사이 20년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첫째, 2000년대 이후에 문화론적 문학사 연구를 주요한 동인으로 해서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sup>15</sup> 또한 BK21사업 등 ‘학진 체제’를 위시하여 국어국문학을 둘러싼 거시적·미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도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으로 확정된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 대상 장르와 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5>에서 보듯 이는 기본적으로 시, 소설, 비평, 희곡

14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15 관련된 연구로는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와 현대문학 연구동향의 변화를 논한 천정환, 박현호, 권창규 등의 논문도 참조 (천정환, 「2019 한국 문화연구, 현황과 과제」, 『안과 밖』 46, 영미문학연구회, 2019; 박현호, 「문학‘史’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우리 시대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 대한 어떤 소회」,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 권창규, 「문학 제도의 경계와 자본의 월경」, 『현대문학의 연구』 5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표 5〉 주제 분류 코드(연구 대상 장르 중심)

번호	장르 중심 분류	장르별 주요 키워드, 범주, 소재, 예
1	시론	장르론(서사시론, 서정시론, 이야기시론, 양식론), 형식론, 언어, 비유, 상상력, 이미지, 리듬, 화자
2	시인론	김수영, 서정주, 박목월, 정지용, 윤동주, 이상 시, 청록파, 임화 등
3	시주제론	내용 분석, 비평론, 소재론, 생태시론
4	소설주제론	내용 분석, ~소설에 나타난
5	소설장르론	소설유형론, 단편소설, 장편소설론, 유형 형성론
6	소설작가론	최인훈, 최인호, 김동리, 이상(소설), 김남천, 염상섭, 김동인, 박태원, 이태준, ...
7	희곡(사)연구	희곡(사), 채만식, 김우진, 유치진, 이해랑,
8	연극(사)론	연극(사), 극장, 배우
9	수필_산문론	수필장르, 산문장르론, 수필작가론 등
10	보고문학과 기타 장르 산문 연구	기록문학, 르포, 평전, 희고록
11	비평론	휴머니즘론, 리얼리즘론, 민족문학론, 대중화론
12	비평사	비평가론, 비평작가론
13	그외 장르적 연구	기타

(연극), 에세이 등으로 분류되는 학계의 관습적 장르 체계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 체계 그리고 역사 시기에 따라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를 가르는 인식 등을 고려하고 각 영역 데이터의 크기도 고려했다.<sup>16</sup> 소설이나 시의 내용(주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주제론’, 서사학적 내용을 가진 연구는 ‘소설장르론’, 시의 이미지, 율격, 장르 등을 논한 연구는 ‘시론’으로 분류했다. 주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두 연구자가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일이 분류명을 붙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완벽하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16 이 기준을 천정화이 마련하였다. 장르 중심 분류 기준을 마련할 때 정우택(시), 홍재범(연극·희곡) 등의 자문을 구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표 6〉 주제 분류코드(연구 대상 주제 중심)

번호	주제 중심 코드	주제, 소재, 키워드, 범주, 사례 등
14	카프 문학 연구	카프 조직사, 퍼스클라, 김기진, 박영희, 임화, 김남천, 한설야, 이기영 등 소설 및 문학론
15	모더니즘 문학연구(식민지기)	식민지모더니즘, 박태원, 이상, 김기립, 구인회, 단충파
16	모더니즘 문학연구(해방 이후)	1950~60년대 시, 모더니즘 소설, 죄수철, 이인성 기타
17	여성문학 및 젠더 연구(식민지기)	해방 이전 여성 작가 및 작품 연구, 여성문학의 형성, 나혜석, 김일엽, 강경애, 노천명, 여성적글쓰기, 페미니즘, 여성시,
18	여성문학 및 젠더 연구(해방 이후)	박완서, 고정희, 박경리, 전혜린 등 여성 작가와 여성성 등의 주제
19	민중문학_노동문학 연구	1970~80년대 민중문학, 전태일, 노동문학, 노동자수기, 여공 수기, 서발탄
20	이동문학 연구	청소년문학, 아동소설, 동화, 동시
21	문학과 영화 연구	재매개, 영화, 영화소설, 문학과영화, 영화화, 시나리오
22	독자, 독서 연구	수용, 독자, 독서, 베스트셀러, 독서문화, 출판문화,
23	문화사 연구(해방 이전)	개화기~식민지기 풍속, 미디어, 담론, 청년, 어린이, 문화론적, 글쓰기, 리터러시, 재미
24	문화사 연구(해방 이후)	풍속, 매체, 담론, 청년, 어린이, 문화론적, 글쓰기, 리터러시, 냉전문화
25	문학문화 연구	문학제도, 글쓰기, 문단, 문인협회, 겸열, 문학장, 신춘문예, 문학상, 문인, 잡지, 문학제도사, 정전, 문학전집, 문학장,
26	대중서사 연구(해방 이전)	로맨스, 추리, 대중가요, 만화, 드라마, 대중소설, 과학소설, SF, 탐정소설, 탐보
27	대중서사 연구(해방 이후)	방송, 판타지, 로맨스, 추리, 대중가요, 만화, 드라마, 대중소설, 과학소설, SF, 탐정소설
28	비교문학 연구	비교,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영향관계, 영향
29	게임_ 뉴미디어 문학 연구	게임서사, SNS, PC통신 문학
30	재외 한인 문학 연구	니아스포라 문학문화, 재미코리안, 제일조선인, 고려인, 카자흐스탄, 재미, 미주동포, 김학철,
31	북한 소설문학 연구	재북 소설테스트와 작가론, 이기영, 한설야, 당대 북한소설 등
32	북한 시문학 연구	북한시, 박세영 등 월북 시인, 당대 북한 시
33	북한문학문화론	비평론, 주체문학론, 북한 잡지 등
34	그 외 주제	

갈래로 분류할지 애매한 논문은 토론을 통해 결정했고 분류 체계를 계속 수정·발전시키는 중이며, 이에 대한 ‘대안 있는’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분류는 <표 6>와 같다.

#### 4) 토픽 분석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군집화(Clustering)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데이터에 라벨이 없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이다. 즉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것이다.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면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의 거시적인 군집과 해당 군집 내 키워드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다. 수백만 건의 신문기사, 논문, SNS 등 한눈에 빅데이터 텍스트의 주제나 의견을 사람이 알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는 데 유용한 기술로 쓰인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토픽 모델링 중 시계열 정보를 활용한 다이내믹 토픽 모델(Dynamic Topic Model)<sup>17</sup>을 활용하였다. 이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토픽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sup>18</sup>. 많은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할 때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sup>19</sup>을 가장 많이 쓴다. LDA는 수천, 수만 개의 텍스트의 거시적인 주제 지도를 그려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메타데이터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sup>17</sup>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topic\\_model](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topic_model)

<sup>18</sup> Blei, David M., and John D. Lafferty. “Dynamic topic models”,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CM, 2006.

<sup>19</sup>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2003, pp.993~1022.

있다. 이를테면 텍스트가 가진 메타정보(작성시기, 작성자, 조회수, 인용지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 주제 지도를 그려볼 수는 없다. 저자들의 목표는 지난 20년 간의 현대문학 박사논문 주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시계열 토픽 모델이 이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이라 가정해보았다. 토픽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시계열 토픽 모델링 분석은 파이썬(Python)과 젠심(Gensim)<sup>20</sup> 패키지를 활용했으며, 토픽 개수(K)는 많은 토의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8개로 결정하였다. 8개의 단어군으로 나누어 연구 주제 그룹을 밝혔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토픽 모델링 결과의 시작화는 파이썬 오픈소스를 활용하였다.<sup>21</sup> 분석 결과는 제3절에 있다.

## 2. 기술통계로 본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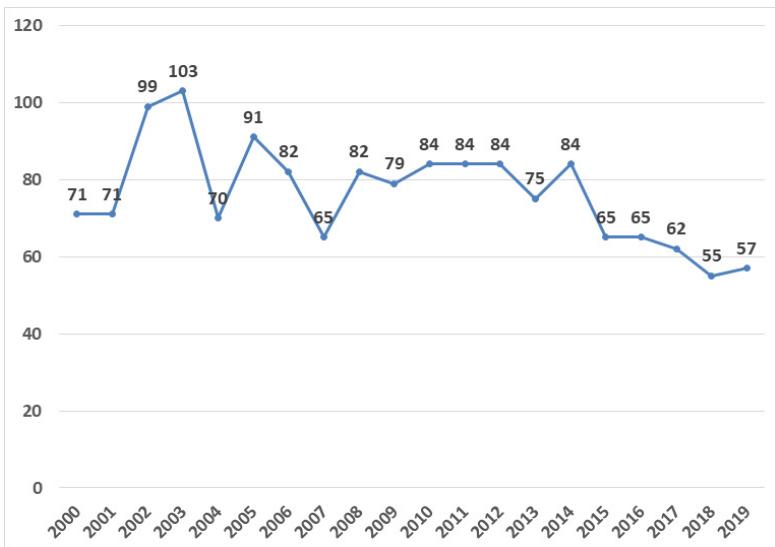
### 1) 일반 현황

전국 약 80여 개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생산된 논문은 20년간 1년에 평균 약 75편이다. 이는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분야가 전체 학문장에서 갖는 위치를 보여주는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박사’의 수는 ‘국어 · 국문학’ 계열 전체(2018년 기준 235편, 국어교육 관련 전공자는 제외한 수.<sup>22</sup>)의 약 1/3에 해당한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이는 ‘일어 ·

20 <https://radimrehurek.com/gensim/>

21 <https://github.com/llefebure/un-general-debates>

22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의 통계를 근거로 함



〈그림 1〉 연도별 박사학위 논문 배출 변화 추이

일문학’ 약 20편, ‘중어·중문학’ 약 40편은 물론 ‘역사·고고학’(2018년 기준 53편)보다 훨씬 크다. 이제 연간 1~2편의 박사논문을 배출하는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등과도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사회학(41)보다는 훨씬 크지만, 심리학(134)과 언론·방송학(103)보다는 작은 수다.<sup>23</sup>

〈그림 1〉에서 보듯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수는 2003년에 103건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고 난 후, 2019년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연 평균 8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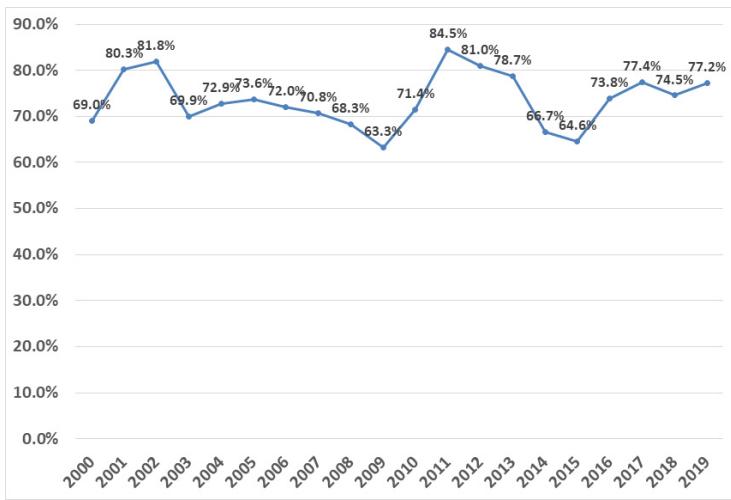
23 참고로 위 사이트의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연구 인력’이 어떻게 배분돼 배출되는지 보라. 대학이 아닌 국책 연구원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행정, 정치, 경제 등)의 분야는 국내 대학이 여전히 박사 학위자를 활발하게 배출하고 있다. 이공계에 대한 논의는 생략 한다.

〈표 7〉 주요 수여 기관별 학위 논문 배출 수

연번	학교명	논문 수	비율	지역
1	고려대학교	155	10.1%	수도권
2	서울대학교	144	9.4%	수도권
3	연세대학교	66	4.3%	수도권
4	경희대학교	65	4.3%	수도권
5	한양대학교	59	3.9%	수도권
6	이화여자대학교	56	3.7%	수도권
7	서강대학교	56	3.5%	수도권
8	충남대학교	54	3.5%	비수도권
9	성균관대학교	53	3.5%	수도권
10	전남대학교	45	2.9%	비수도권
11	동국대학교	40	2.6%	수도권
12	부산대학교	34	2.3%	비수도권
13	전북대학교	31	2.0%	비수도권
14	중앙대학교	29	1.9%	수도권
15	아주대학교	28	1.8%	수도권
16	조선대학교	28	1.8%	비수도권
17	건국대학교	27	1.8%	수도권
18	경북대학교	27	1.8%	비수도권
19	인하대학교	27	1.8%	수도권
20	영남대학교	21	1.4%	비수도권
21	한국외국어대학교	20	1.3%	수도권
22	국민대학교	20	1.3%	수도권
23	단국대학교	20	1.3%	수도권
24	한남대학교	20	1.3%	비수도권

으나, 2015년 이후에는 50~60건의 박사학위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아카데미즘에 과연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추세 하락’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인문학과 학문재생산의 위기, 인접 타 분야(한국어교육 관련, 문화콘텐



〈그림 2〉 연도별 24개 '주요 대학' 박사학위 배출 비중 변화

느, 비교문학, 동아시아학과 등)의 확장 등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인접 분야의 연구 상황을 분석할 다음 기회로 미룬다.

지난 전국 대학 국어국문학과 중 20명 이상 박사를 배출한 학교는 24개 학교였고 그 목록과 배출 수는 〈표 7〉과 같다.

상위 24개 학교는 전체 박사 학위자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고려대와 서울대는 지난 20년간 합쳐서 약 300 명의 현대문학 박사를 배출했으며, 이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위 24개 대학 중 2/3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었으며, 나머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3개 대학(조선대, 영남대, 한남대)를 제외하고 모두 국립대학이었다.

20년간 매해 한번도 빠짐없이 박사학위를 배출한 학교는 고려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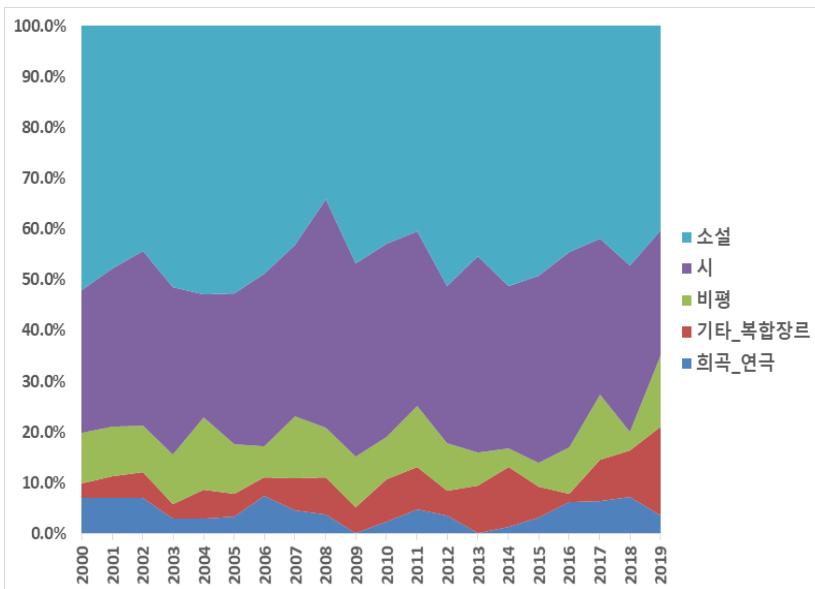
서울대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연도별 부침은 있으나 상위 24개 대학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약 77%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범 국어 국문학’ 분야 대학원생 수는 매년 증가 중이고 인문학 전체 분야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했지만, 기실 연구자 재생산은 특정 학교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외 대학 출신의 박사학위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통계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속 사정’은 더 많다. 다른 데이터와 결부시키면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진로와 출신(지역, 학교, 지도교수 등) 같은 미묘한 ‘현실적’ 문제도 다룰 수 있다. 또 한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방법과 주제의 연구가 더 많이 생산되었는지도 사실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 2) 연구 대상 장르 및 시대별 분포

현대문학 박사논문을 소설, 시, 비평, 희곡·연극, 기타(아동문학, 수필, 보고문학 등과 복합장르 등) 등의 장르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난 20년간 현대문학 박사논문의 대상 장르는 소설이 가장 많았고 시는 그 뒤를 이어 둘을 합치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여전히 시·소설 중심의 연구가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기타\_복합장르’나 탈장르적 연구가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 3).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이라든가 「텔레비전 현상과 현대



〈그림 3〉 연도별 연구 장르 분포

드라마의 미학」 같은 논문을 「기타\_복합장르」로 분류했다.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이나 석사논문, 학술지 소논문 등에서 더 잘 드러나겠지만 비 소설 산문, 게임, 매체, 스토리텔링, 대중서사 등으로 연구주제는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라는가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같은 논문은 탈장르적이면서 동시에 해당 시대 문화정치사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서, 문화론적 관점과 탈장르적 연구가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표 8〉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시대 비율

시대 구분	개수	비율
통사—해방이후	506	33.1%
통사—전체	289	18.9%
통사—해방이전	261	17.1%
1930년대 문학연구	117	7.7%
1950년대 문학연구	68	4.5%
1960년대 문학연구	67	4.4%
개화기 문학 연구 (1890~1900년대)	39	2.7%
1920년대 문학 연구	39	2.6%
1970년대 문학연구	34	2.2%
1980년대 문학연구	25	1.6%
일제말기 문학연구	23	1.5%
해방기(1945~49) 문학연구	18	1.2%
1910년대 문학 연구	15	1.0%
2000년대 문학연구	14	0.9%
1990년대 문학연구	10	0.7%
총합계	152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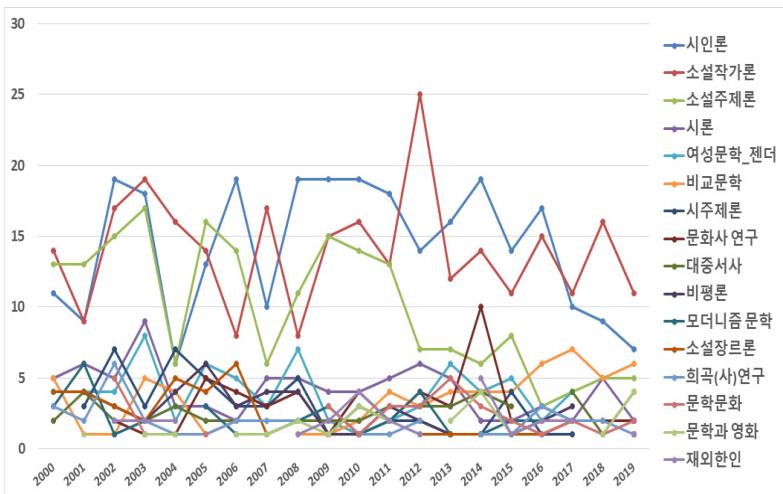
#### 연구 대상 시대의 변화<sup>24</sup>

한 시대의 문학에 귀속되지 않고 여러 시대에 걸친 것을 ‘통사적 연구(통사)’로 분류하고 ‘해방 이후(통사)’와 ‘해방 이후(통사)’ 그리고 시대와 무관한 주제를 가진 연구를 ‘전체(통사)’로 분류했다. 분류 결과 ‘해방 이후(통사)’가 33.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박사논문의 특성상 보다 큰 시대를 다루고, 작가론의 경우에도 활동 시기가 긴 대가들이 주된 연구대상이 된 일을 반영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 문학

연구가 아니라 해방 이후의 문학/문화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2000년 이후 현대문학 연구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할 수 있다. 통사적인 연구가 아닌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시대는 1930년대였다. 모더니즘 시인, 카프 등 시/소설/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기점으로 크게 잘라서 개화기~식민지 시대 문학/문화 연구와 ‘해방 이후’ 연구를 비교해본 결과, 2006년부터 처음으로 ‘해방 이후’ 연구가 전체 연구의 약 51%에 이르렀다. 이후 다소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0년부터는 계속 50%를 웃돌면서 2019년 현재 60%에 이른다. 이와 반

24 개화기에서 2000년대까지를 통상의 방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자른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시기별 상위 15대 주제 변화추이

다. ‘소설작가론’은 「李泰俊 文學作品에 나타난 선비정신 研究」 「蔡萬植 文學 研究」처럼 작가의 의식이나 세계인식을 중심에 놓고 작품활동을 연결시킨 연구를 뜻한다. ‘소설장르론’은 소설유형, 장르, 서사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韓國小說의 故述樣 式 研究」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는 ‘시인론’, ‘소설작가론’ 등의 작가론이었다. 시인론과 소설작가론은 도합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다.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본 ‘여성문학\_젠더 연구’를 합칠 경우 그 비율은 상당히 높아서 주제 중심 분류에서는 거의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대중서사연구’나 ‘문화사 연구’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장르 중심 및 주제 중심 분류 통계

연번	분류명	편수	비율
1	시인론	286	18.7%
2	소설작가론	281	18.4%
3	소설주제론	198	13.0%
4	시론	83	5.4%
5	비교문학	66	4.3%
6	시주제론	53	3.5%
7	비평론	47	3.1%
8	여성문학_젠더 연구(해방 이후)	46	3.0%
9	소설장르론	38	2.5%
10	대중서사 연구(해방 이후)	37	2.4%
11	문화사 연구(해방 이전)	35	2.3%
12	희곡(사)연구	35	2.3%
13	문학문화 연구	33	2.2%
14	여성문학_젠더 연구(식민지기)	28	1.8%
15	재외한인 문학연구	27	1.8%
16	문학과 영화 연구	27	1.8%
17	아동문학 연구	25	1.6%
18	카프문학 연구	22	1.4%
19	모더니즘 문학 연구(식민지기)	22	1.4%
20	연극(사)론	20	1.3%
21	비평사	18	1.2%
22	문화사 연구(해방 이후)	17	1.1%
23	모더니즘 문학 연구 (해방 이후)	16	1.0%
24	독자_독서 연구	13	0.9%
25	대중서사 연구 (해방 이전)	11	0.7%
26	게임_뉴미디어 문학연구	10	0.7%
27	북한 소설문학 연구	8	0.5%
28	북한 시문학 연구	8	0.5%
29	민중_노동문학 연구	8	0.5%
30	북한문학문화론	7	0.5%
31	수필_산문_장르론	3	0.2%
	계	1,528	

#### 4) 작가론 · 시인론 연구와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 추세

대가 중심 작가론은 현대문학 연구의 중핵을 차지해왔다. 그 2000년대 이후의 경향은 볼만했다.<sup>25</sup> 시 연구는 소설에 비해 작가론(시인론)적 경향의 연구가 훨씬 많았다.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억할만하다. 그중에서 김수영, 이상, 김춘수, 백석, 서정주, 정지용, 윤동주 연구 순으로 많았다.<sup>26</sup> 아래 표의 통계는 논문 제목(부제 포함)에 문인의 이름이 언급된 빈도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예컨대 제목이 「박경리 소설『토지』 연구』라면 호명 문인은 ‘박경리 1회’로 설정된다. 「이상 · 김기림 문학의 모더니즘 연구」처럼 복수의 작가론을 통해 언급한 경우도 모두 1로 계

25 성은혜는 “형식주의자였던 웰렉(Rene Welleck)과 워伦(Austin Warren)”이 “문학 작품의 가장 명백한 근거는 그것의 창작자인 저자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작가의 품성과 생애로 설명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잘 수립된 문학 연구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최근 한국 문학 교육 현장의 “반웅중심” 문학교육을 비판하고 작가론의 중요성을 복권하려 하고 있다. 1950년대에 쓰인 미국 문학개론서의 작가론의 의의가 2019년에도 옹호되는 사실이 흥미롭다. 성은혜, 「문학교육에서 작가론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28,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한편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작가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석형락, 「근대문단 형성기 작고 작가 애도문(哀悼文) 연구—한국근대작가론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석형락, 「1930년대 작가론의 전개 과정 연구—카프 계열 작가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9.; 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조연현과 『현대문학』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 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10.

26 이에 대해 박지영은 한국 시사 연구는 “한국현대문학 연구의 주요 동향인 매체 연구 등 실증적 컨텍스트 연구에서는 다소 거리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친일시 연구, 번역 연구, 언어 연구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시문학사연구로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척하지 못하고, 타장르의 연구 방법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한국현대시 연구가 직관에 의존하는, 텍스트와 작가 연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지영, 「한국 현대시 연구의 성과와 전망—“운명”과 “혁명”, 왜, 아직도 “임화”와 “김수영”인가?」, 『洋橋語文研究』 32, 반교어문학회, 2012, 56쪽.

〈표 10〉 논문 제목에 표기된 작가와 언급 빈도 10회 이상 작가명

순위	이름	빈도	순위	이름	빈도
1	김수영	46	16	박완서	15
2	이상	43	17	김기립	14
3	김춘수	37	18	이문구	13
4	이청준	36	19	김동리	13
5	최인훈	35	20	조지훈	13
6	서정주	34	21	황석영	12
7	백석	34	22	김소월	12
8	정지용	31	23	신동엽	11
9	이광수	28	24	박태원	11
10	염상섭	23	25	임화	11
11	박경리	22	26	장용학	10
12	윤동주	19	27	오정희	10
13	김승옥	17	28	김유정	10
14	황순원	17	29	김동인	10
15	채만식	15	30	이태준	10

산했다. 이런 계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 빈도값도 계산해보았으나 크게 절대빈도의 등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시인이 소설가에 비해 절대-상대빈도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밝힌다. 왜냐하면 ‘시’ 연구의 경우 두세 명의 시인을 묶어 시 주제론이나 시론을 펴는 경우가 소설이나 다른 장르의 작가론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시 연구뿐만 아니라 비평사 등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이상 또한 시와 소설에 걸쳐 연구 대상이 되어서,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위 표는, 각각의 작가·시인이 표상하는 시정신과 정신성은 과연 무엇인가? 왜 2000년대에는 특히 김수영 연구가 활발해진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답하는 것은 한

국문학 연구의 본연적 특징과 그 주체들의 정체성 의식, 나아가 한국 지성사의 풍경을 소묘하는 일과 분명 연관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상 문학 연구가 변함 없이 성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상 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의 어떤 균원적 충동·결핍·불안과 결부돼 있음은 일찍이 논구된 바 있다. 1950년대 이래 이상 문학은 임종국·이어령 등에 의해 최초로 체계적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구조주의적 시아와 고은·김윤식·이승훈 등의 노력에 의해 다른 맥락에서 호명되었다 한다.<sup>27</sup> 1990년대에 한국문학의 근대성 연구가 활발해지자 이상 문학이 동시에 보유한 근대의 매혹과 부정성, 그리고 ‘식민지 근대’의 콤플렉스가 중요했다. 이상 문학 연구의 생산성은 이상문학의 생성성과 유관하다. 김윤식은 작품으로서의 이상 문학과 텍스트로서의 이상 문학을 구분하며 이상의 텍스트는 “생성하는 기호”이자 ‘화정 불가능한 원전’이었으며 이는 이상의 글쓰기 형식 그 자체였다 했다. 즉 이상의 텍스트가 가진 모호성, 다층성이 세대를 건너 이상 문학 연구를 계속 이어지게 한다. 김윤식은 “각 세대는 자기 세대의 언어감각에 따라 각주도 해석도 재창조해야 된다”면서 후대가 선배보다 더 나은 주석 달기가 “인문학의 운명이자 성립 근거”<sup>28</sup>라 했다. 물론 이런 연구 대상이 되는 작가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 비해 김수영은 더 늦게 한국 현대문학사의 ‘신전’에 기입되고 그야말로 ‘당대’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시인임에 분명하다. 박지

27 김주현, 「이상 문학 연구와 한국문학의 현대성」, 『국제언어문학』 19, 국제언어문학회, 2009.

28 김윤식, 「내가 살아온 이상 문학—『이상 연구』에서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까지」,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10, 26~27쪽.

〈표 11-1〉 논문 제목에 표기된 작가와 언급 빈도 10회 이상 작가명 연도별 변화량(2000~2009)

이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김수영	2	3	5	4	1	1	5	1	2	3
이상	1	2	5	1	3	4	0	3	1	3
김춘수	1	2	2	3	1	0	2	0	2	4
이청준	1	2	1	0	2	2	2	4	0	2
최인훈	1	3	1	5	1	3	1	3	0	1
서정주	2	2	4	3	1	3	5	1	3	0
백석	1	0	2	1	1	2	0	3	4	0
정지용	4	2	3	1	0	4	0	0	1	2
이광수	2	0	3	3	1	0	0	2	1	1
박경리	0	1	2	0	0	0	2	1	1	2
염상섭	0	2	3	2	1	1	1	1	1	1
윤동주	2	1	1	2	2	1	0	1	0	1
김승옥	1	2	1	1	1	2	2	2	1	1
황순원	0	2	3	2	0	1	0	0	0	2
채만식	2	0	0	5	2	3	0	0	0	0
박완서	0	3	0	0	0	1	0	0	1	0
김기림	1	1	0	1	3	0	0	1	1	0
조지훈	1	0	1	0	1	3	0	1	0	2
김동리	2	2	0	0	2	0	0	2	0	0
이문구	0	1	0	1	2	2	1	0	0	0
김소월	1	1	1	0	0	0	1	0	2	0
황석영	0	0	0	0	2	1	2	1	0	0
임화	1	0	0	0	0	1	0	2	1	0
신동엽	2	0	1	0	0	0	1	0	1	1
박태원	0	0	1	0	0	2	0	0	1	2
이태준	1	1	2	3	1	0	0	0	0	1
오정희	0	1	0	0	0	1	0	0	0	2
김동인	0	1	1	0	0	1	1	0	0	0
장용학	0	0	3	2	0	0	0	0	0	2
김유정	0	0	0	1	0	2	0	0	0	1

〈표 11-2〉 논문 제목에 표기된 작가와 언급 빈도 10회 이상 작가명 연도별 변화량(2010~2019)

이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김수영	2	2	2	0	1	2	4	3	1	2
이상	3	0	2	1	1	2	3	3	3	2
김춘수	1	3	3	4	2	3	3	1	0	0
이청준	4	1	3	4	1	1	3	1	1	1
최인훈	3	2	1	1	1	1	3	1	2	1
서정주	0	4	0	3	0	0	1	1	0	1
백석	4	2	2	1	2	4	2	1	0	2
정지용	0	2	3	1	1	2	1	2	0	2
이광수	0	4	0	1	1	1	1	1	2	4
박경리	2	1	1	3	1	1	2	1	0	1
염상섭	1	0	1	2	0	0	0	1	1	2
윤동주	0	2	1	0	1	0	1	1	1	1
김승옥	2	0	1	0	0	0	0	0	0	0
황순원	2	1	1	0	1	0	0	1	0	1
채만식	0	0	1	0	0	0	1	0	0	1
박완서	0	2	1	0	0	0	1	1	4	1
김기림	0	1	0	1	1	1	0	1	1	0
조지훈	2	1	0	1	0	0	0	0	0	0
김동리	0	1	1	0	1	0	0	2	0	0
이문구	0	1	2	0	0	0	0	0	2	1
김소월	2	0	1	0	1	1	1	0	0	0
황석영	1	1	1	0	1	1	1	0	0	0
임화	0	2	0	1	0	0	0	1	1	1
신동엽	1	0	1	1	0	1	0	0	0	1
박태원	0	0	1	1	0	1	2	0	0	0
이태준	0	1	0	0	0	0	0	0	0	0
오정희	2	2	1	1	0	0	0	0	0	0
김동인	0	0	1	1	1	0	0	0	1	2
장용학	0	0	1	0	1	1	0	0	0	0
김유정	2	0	0	1	2	0	0	0	1	0

〈표 11-3〉 논문 제목에 표기된 작가와 언급 빈도 10회 이상 작가명 2000~2019(합계)

이름	합계	이름	합계
김수영	46	박완서	15
이상	43	김기림	14
김춘수	37	조지훈	13
이청준	36	김동리	13
최인훈	35	이문구	13
서정주	34	김소월	12
백석	34	황석영	12
정지용	31	임화	11
이광수	28	신동엽	11
박경리	22	박태원	11
염상섭	21	이태준	10
윤동주	19	오정희	10
김승옥	17	김동인	10
황순원	17	장용학	10
채만식	15	김유정	10

영에 의하면, 2010년대 이후 김수영의 생애사가 재발견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고 그가 남과 북 사이에서 그리고 4·19혁명을 겪으면서 노정했던 ‘전향’이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의 주요한 이유라 한다. 우선 연구 대상에게서 이유를 찾은 셈인데, 박지영은 흥미롭게도 한국 현대시 연구자들의 ‘좌파적’ ‘낭만적’ 성향을 김수영(+임화) 연구와 결부시키기도 했다.

한편 일제시기 작가로는 역시 이광수·염상섭·채만식 등이, 해방 이후 소설가로는 이청준·최인훈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여성 문학가 중에서는 박완서와 박경리가 두드러진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청준·최인훈이 나란히 이광수·염상섭 보다 더 많이 호명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예컨대 최인훈의 경우, 2010년대 이래의 1960년대 이후 문학에 대한 연구 수요의 급격한 증대, 문학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냉전문화 연구나 탈식민주의, 소설과 히곡을 넘나든 ‘글쓰기’ 등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계발된 연구 주제(코드)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29</sup>

### 3. 한국 현대문학 연구 토픽 모델링

#### 1) 절차와 사전 작업 키워드들

박사논문 서지 데이터에서 ‘제목’과 ‘목차’를 하나의 열(column)로 합쳐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목차에는 1의 치수를 부여하고, 제목에는 2의 가중치를 주었다. 제목이 해당 논문의 핵심을 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단어나 형태소 형태로 분절하는 것을 토크나이징(tokenizing)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카이(Khaiii)<sup>30</sup>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카이(Khaiii)는 다음카카오에서 만든 딥러닝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로 속도와 성능이 뛰어나고 사용자

29 배지연, 「최인훈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6.;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8; 〈화두〉에 나타난 근대성 비판과 소설 형식 연구, 최윤경, 전남대 박사논문, 2018; 홍웅기, 「1960년대 문학과 지식인 소설의 양상 연구—최인훈·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박사논문, 2013 등을 참조.

30 <https://github.com/kakao/khaiii>

사전 추가가 용이하다. 사용자 사전(user dictionary)이란 기존 형태소 분석기가 내장하는 단어 사전에 연구자가 추가로 단어를 입력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현대문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복합명사(예컨대 ‘민족 문학’, ‘현대시’ 등)나 작가명이 제대로 인식되도록 추가 사전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400개의 추가 단어를 사전에 등록하였으며 여러 품사 중 명사<sup>31</sup>만을 활용하였다. 형용사, 동사 등의 품사 어휘는 연구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알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피 모델링 분석을 하기 앞서 예비적 작업으로 2000년대와 2010년 대의 키워드 비교 분석으로 거시적인 연구 동향 변화를 살피고, 토피 모델링을 위한 기본 전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키워드는 논문의 저자들이 설정한 ‘주요어’ ‘표제어’가 아니라, 이 글의 저자들이 추출한 논문 제목과 목차에 쓰인 어휘이다.<sup>32</sup> 논문의 제목과 목차에서 추출한 명사의 단순 빈도수와 역문서 빈도(TF-IDF)를 바탕으로 각 시기의 상위 30 개 단어를 추출해 보는 방식을 택했다.<sup>33</sup>

31 이때 명사에 의존명사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의존명사를 붙여서 복합명사 형태로 추출하였다. 예컨대 ‘근대성’이라는 단어를 형태소 분석했을 때 ‘근대+성’으로 분리될 수 있다. ‘성’이라는 의존명사를 떼어낸다면 ‘근대성’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접두/접미사를 살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대와 연도를 뜻하는 수사(數詞)도 명사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많은 박사논문의 제목과 목차에는 ‘1930년대’ 혹은 ‘1940~50’ 등과 같은 시대 표현이 많은데 이를 OO년대 치환해 연구 대상 시대를 추출할 수 있었다.

32 유감스럽게도 논문 저자들이 설정한 ‘주요어’ ‘표제어’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 개수와 선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주요어’ ‘표제어’를 활용하려던 계획은 수정해야 했다.

33 TF는 단순 빈도(Term-Frequency), TF-IDF는 단순빈도(TF)에 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해 해당 논문에서 더 중요하게 쓰인 단어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정의는 위키피디아 링크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표 12〉 2000년대와 2010년대 키워드 빈도 수

2000년대(2000~2009)				2010년대(2010~2019)			
순위	단어	TF	TF-IDF	순위	단어	TF	TF-IDF
1	근대	944	42.87995	1	주체	843	39.80666
2	의식	902	42.50012	2	의식	776	38.71254
3	현실	795	36.20427	3	근대	639	35.98343
4	서사	736	36.17807	4	공간	559	32.18676
5	주체	708	35.16651	5	현실	607	31.08049
6	공간	598	34.89826	6	서사	559	30.07709
7	인식	652	30.54731	7	인식	617	29.86932
8	구조	566	30.43753	8	여성	458	28.43323
9	세계	522	29.46848	9	세계	416	24.48719
10	여성	488	28.30104	10	역사	351	23.22669
11	담론	482	27.47232	11	의미	419	22.31798
12	형성	486	25.64351	12	이미지	293	21.49332
13	의미	422	23.31907	13	언어	298	20.54119
14	수용	389	23.16621	14	형성	358	19.62435
15	역사	402	21.19687	15	사회	311	19.17886
16	서술	340	20.66845	16	민족	287	18.80632
17	민족	339	20.16116	17	문화	260	18.09261
18	지향	325	19.91273	18	비판	283	17.86414
19	인물	302	19.11844	19	구조	271	17.84027
20	이미지	240	19.04639	20	지향	288	17.66869
21	자아	280	19.01857	21	욕망	277	17.66017
22	시간	273	18.57899	22	수용	275	17.16166
23	1930년대	265	18.36082	23	담론	252	16.18232
24	비판	319	18.34445	24	자연	206	16.1048
25	전통	282	18.22988	25	정치	255	15.95046
26	욕망	298	17.87441	26	공동체	220	15.38754
27	사회	306	17.86339	27	죽음	222	15.21888
28	언어	234	17.72311	28	이상	179	15.01503
29	미학	204	15.90445	29	체험	201	14.98702
30	텍스트	212	15.88335	30	윤리	233	14.6591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나누어서 어떤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2000년대의 박사논문에서 는 2010년대에 비해 ‘근대, 구조, 담론, 서술, 전통, 수용, 인물, 자아, 1930년대’ 같은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2010년대에는 ‘언어, 정치, 문화, 공동체’ 등의 단어가 더 중요해졌다. ‘의식, 여성, 역사, 이미지’ 등의 단어는 양 시기에 비슷한 중요도를 갖고 있었다.

##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8개 토픽 군집과 단어들

토픽모델링은 연구자가 토픽 개수를 인공지능(AI)에게 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토픽의 수에 따라 단어의 군집이 달라진다. 너무 작게 토픽 군을 정하면 거시적인 트랜드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며, 너무 크게 토픽 을 나누면 미시적인 연구 동향 변화를 추적해낼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 가 토픽 개수를 바꿔보면서 하나의 토픽에 적당량의 주제가 부여되도록 계속 다른 토픽 개수로 분석을 반복 진행한다.<sup>34</sup> 우리는 여러 번의 실험 끝에 8개의 AI에게 그루핑을 명했고 AI는 아래 설명과 같은 토픽 단어 군집을 형성해 보여주었다. 모든 그룹에는 ‘근대’ ‘주체’ ‘역사’ ‘의식’ ‘인식’ 등과 같은 공통된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에서만 빈 도가 유달리 높은 특정 표지 단어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각 토픽의 라벨(label, 이름)을 토픽 내의 표지 단어들과 앞서 설정한 33대 연구 주제

34 최적 토픽 개수에 관련한 여러 지표가 있으나(Perplexity, Semantic coherence 등) 이번 연구에서는 하나의 토픽에 알맞은 연구 주제로 분류됐는가 여부를 주안점에 두고 분석하였다.

를 함께 참작하여 정할 수 있었다.

그 이름을 각각 ‘소설양식론’, ‘소설주제론과 문화론적 연구’, ‘소설 주제론과 기타’, ‘시주체론’, ‘시양식론’, ‘비평과 시론 기타’, ‘연극/영화 및 대중문화 연구’, ‘여성문학 및 젠더 연구’로 붙여보았다. 이 8개 토픽 그룹은 키워드를 매개로 하여 시, 소설 중심의 박사논문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보여준다. 새로운 경향의 연구를 표상하는 문화론적 연구나 비교문학의 키워드들은 ‘연극 영화 및 대중문화 연구’, ‘소설주제론’ 속에서 분산돼서 나타났다. 예컨대 ‘독자’ ‘매체’ ‘대중’ 등이 그렇다. 비평사 연구와 연관된 어휘들도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산돼서 나타난다. 이 또한 비평사 연구 박사논문의 모수 자체가 충분한 수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의식’ ‘인식’ ‘현실’ ‘구조’ ‘주체’ ‘구성’ 등의 단어는 모든 그룹에서 다 나타나는 중요한 어휘들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그룹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표지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이 단어들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 전반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란, ‘○○○ 작가들의 또는 ○○○○라는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이나 ‘의식’ 등을 주로 연구하고 또한 그 구조와 구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의 목록을 제시했고, 각 토픽 그룹 내에서 주요 단어의 사용 변화 플롯(plot)을 그래프로 만들었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각각 양(+)의 방향으로 가장 큰 단어 3개, 음(-)의 방향으로 가장 큰 단어 3개를 뽑아 시작화한 것이다. 양(+)의 방향이란 시간에 지날수록 토픽 안에서 해당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는 뜻이고 음(-)은 반대로 적게 쓰인다는 의미다.

### (1) 소설양식론

이 그룹은 전체 토픽 그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다. ‘소설양식론’이라 붙여본 이 그룹에서는 지난 20년 전체를 통틀어 ‘소설’과 ‘서사’ ‘의식’ ‘현실’ ‘역사’가 언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조’, ‘인물’, ‘서술’처럼 소설의 서사 구조와 서사학적 분석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형성한 군집이다. <표 13>, <그림 5> 참조.

### (2) 소설주제론과 문화론적 연구

이 토픽 그룹의 지표 단어가 되는 것은 다른 그룹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잡지’ ‘교육’ ‘아동’ ‘신문’ ‘독자’ 등이다. 낮은 빈도로 ‘1910년대’ ‘1920년대’ ‘소년’ 등도 중요하다. 따라서 역시 ‘소설’이 그룹을 형성한 이 그룹에서 ‘문화론적 연구’의 주요 어휘들은 소설사 연구와 결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문화론적 연구가 소설주제론과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론적 연구는 문학을 벗어난 문화사 연구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설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채 전개됐다 할 수 있다. <표 14>, <그림 6> 참고.

### (3) 소설주제론과 기타

‘주체’ ‘담론’ ‘근대’ ‘식민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그룹에 ‘서사’ ‘이광수’ ‘소설’ 같은 단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소설주제론과 기타’라 묶을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욕망’ ‘문화’ 같은 단어가 함께 나타나, 서사 담론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위 (1),(2) 그룹에 묶이지 않은 연구에 서의 단어들이 묶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그림 7> 참고.

#### (4) 시주제론

이 그룹에는 ‘의식’ ‘현실’ ‘인식’ ‘언어’ 같은 문학 연구 전반에서 범용되는 어휘가 많지만 ‘시’를 앞장 세웠고 또 ‘시학’ ‘김수영’ 같은 단어가 같이 묶였기 때문에 ‘시주제론’ 토픽 그룹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다. <표 16>, <그림 8> 참고.

#### (5) 시양식론

시 텍스트 분석에 정향된 어휘들이 이 그룹에 묶였다. 예컨대 ‘이미지’ ‘상징’ ‘은유’ 같은 단어들이다. 그외 ‘시간’ ‘공간’ ‘세계’ ‘의식’ 등도 이 그룹에서 두드러진다. <표 17>, <그림 9> 참고.

#### (6) 비평과 시론, 기타

이 토픽 그룹을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다. ‘시’와 ‘민족’, ‘비평’과 ‘북한’ 등이 공존하는 그룹을 특징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7개의 다른 특징적인 그룹들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인공지능이 이 그룹에 가져가 묶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문학 연구, 한중 비교문학 연구와 연관된 주제들의 어휘가 이 그룹에서 나타난다. <표 18>, <그림 10> 참조.

#### (7) 연극 · 영화 및 대중문화 연구

이 그룹에는 다른 토픽 그룹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 많다. ‘연극’, ‘영화’, ‘희곡’, ‘드라마’를 위시하여 ‘게임’, ‘영상’ 같은 단어들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 장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중문화 및 대중서사에 관한 연구와 연관된 단어가 포함된 그룹이라

볼 수 있다. ‘독자’, ‘매체’, ‘문화’ 등의 단어를 통해 이 그룹에 문화론적 연구의 논문들이 관여됐음을 알 수 있다. 〈표 19〉, 〈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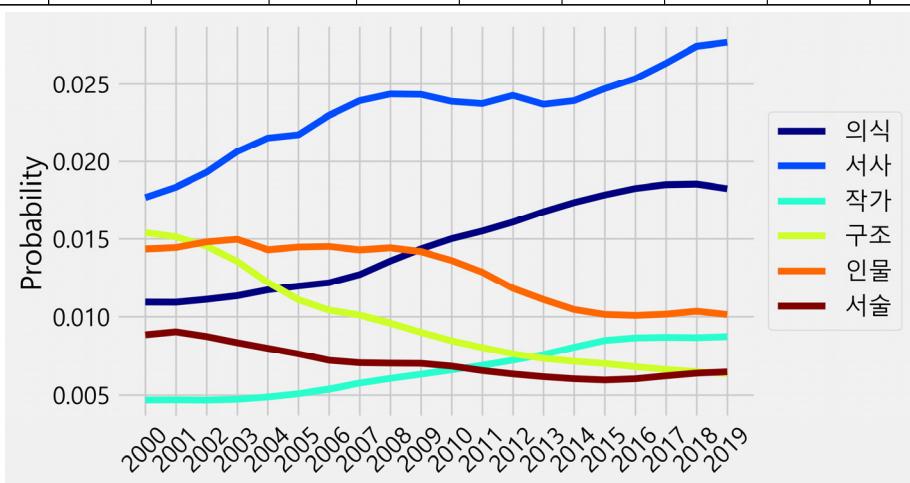
#### (8) 여성문학/젠더 연구

이 그룹의 표지가 되는 단어들은 ‘여성, 몸, 신체, 욕망, 남성, 모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외 인공지능은 ‘도시, 1930년대, 1960년대’ 같은 단어들을 이 그룹에 같이 묶어 주었다. 〈표 20〉, 〈그림 12〉 참조.

〈표 13〉 소설양식론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현실	현실	현실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역사	구조	인물	인물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구조	역사	구조	역사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의식
인물	인물	역사	구조	구조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인물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서술	서술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전쟁	전쟁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갈등	서술	서술
의미	삶	삶	삶	삶	삶	삶	전쟁	비판	비판
삶	의미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삶	갈등	삶
비판	비판	의미	의미	전쟁	전쟁	전쟁	비판	삶	작가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의미	1970년대	작가	작가	작가	갈등
상황	상황	상황	상황	상황	의미	1970년대	1970년대	의미	의미
전후	현대	대웅	현대	1970년대	상황	의미	의미	분단	분단
현대	대웅	현대	작가	작가	작가	분단	분단	1970년대	형상화
대웅	분단	작가	분단	분단	분단	상황	상황	형상화	1970년대
분단	작가	분단	대웅	현대	현대	형상화	형상화	상황	대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소설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인물	인물	인물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구조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전쟁	전쟁
사회	구조	전쟁	전쟁	작가	작가	작가	작가	사회	사회
전쟁	전쟁	구조	작가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작가	작가

서술	작가	작가	구조	구조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작가	서술	서술	의미	의미	의미	형상화	형상화	형상화	형상화
삶	삶	의미	서술	갈등	형상화	구조	구조	구조	서술
갈등	의미	삶	삶	형상화	갈등	갈등	서술	서술	구조
의미	갈등	갈등	갈등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형상화	형상화	대응	대응	삶	삶	서술	갈등	삶	삶
대응	대응	형상화	형상화	서술	서술	삶	갈등	갈등	갈등
분단	1970년대	욕망	욕망	욕망	욕망	욕망	시대	시대	시대
1970년대	분단	이데올로기	시대	시대	시대	시대	욕망	욕망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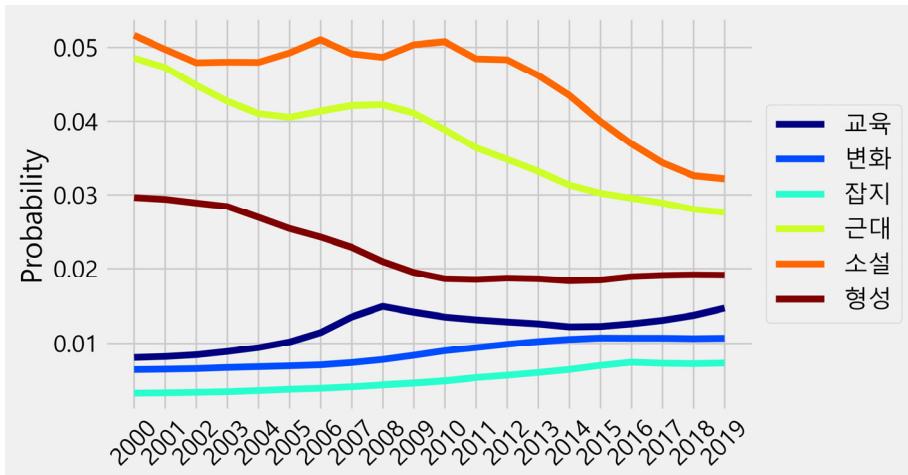


〈그림 5〉 소설양식론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소설’ 제외)

〈표 14〉 소설주제론과 문화론적 연구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설									
근대									
형성									
담론	교육	교육	교육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교육	담론	담론	이동
수용	수용	고백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담론
고백	고백	수용	수용	교육	교육	서사	서사	서사	서사
1920년대	1920년대	아동	고백	수용	수용	1910년대	1910년대	1910년대	변화
아동	아동	교육	교육	고백	1910년대	신문	신문	신문	신문
독자	교육	1920년대	양식	1910년대	고백	수용	변화	변화	번역
교육	독자	독자	1920년대	양식	양식	양식	번역	번역	1910년대
양식	양식	양식	독자	1920년대	신문	독자	양식	추리	소년
계몽	계몽	계몽	1910년대	독자	독자	고백	수용	독자	독자
1910년대	1910년대	1910년대	계몽	계몽	계몽	계몽	독자	수용	추리
개화기	개화기	신소설	신소설	신소설	1920년대	변화	추리	계몽	문화
문체	문체	문체	개화기	개화기	신소설	추리	계몽	문화	계몽
신소설	신소설	개화기	신문	신문	개화기	번역	1920년대	양식	수용
신문	신문	신문	출판	변화	변화	1920년대	고백	소년	1920년대
출판	출판	출판	변화	번역	번역	신소설	문화	1920년대	양식
변화	변화	변화	문체	추리	추리	개화기	대중	대중	대중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설									
근대									
형성									
교육									
아동									
담론	독자	독자							
변화	독자	담론	담론						
번역	번역	소년	소년	소년	문화	독자	변화	변화	번역
신문	소년	신문	신문	신문	독자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서사	신문	번역	서사	문화	소년	소년	신문	번역	번역
소년	서사	서사	문화	독자	신문	신문	소년	신문	신문

1910년대	1910년대	독자	번역	서사	서사	서사	번역	소년	소년
독자	독자	문화	독자	번역	번역	번역	서사	서사	서사
문화	문화	추리	추리	추리	추리	잡지	잡지	잡지	잡지
추리	추리	1910년대	1910년대	1910년대	잡지	추리	추리	추리	추리
계몽	대중	대중	대중	잡지	1910년대	1910년대	1910년대	대중	1920년대
대중	계몽	계몽	잡지	대중	대중	대중	대중	1910년대	대중
1920년대	1920년대	1920년대	1920년대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1920년대	1920년대	1910년대
수용	수용	잡지	계몽	1920년대	1920년대	1920년대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양식	양식	청소년	청소년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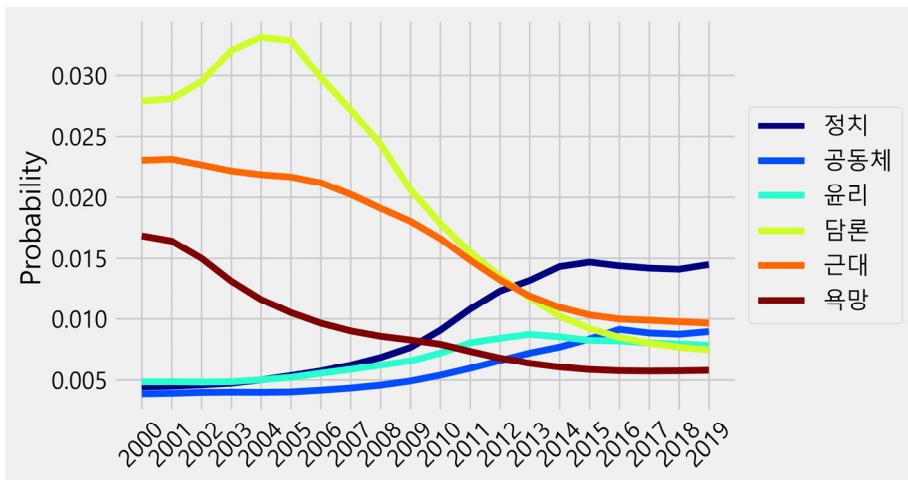


〈그림 6〉 소설주제론과 문학론적 연구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

〈표 15〉 소설주제론과 기타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체									
담론									
근대									
욕망	욕망	욕망	욕망	민족	민족	민족	민족	민족	민족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욕망	욕망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민족	민족	민족	민족	사랑	식민지	욕망	욕망	문화	문화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사랑	문화	문화	욕망	욕망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문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정치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이데올로기	사랑	사랑	사랑	이데올로기
형성	사랑								
연애	연애	연애	연애	연애	연애	국민	정치	정치	윤리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연애	국민	윤리	형성
이광수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정치	윤리	국민	이광수
서사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정치	윤리	이광수	이광수	국민
미	미	미	윤리	윤리	국민	개인	서사	서사	서사
논리	논리	논리	미	정치	이광수	이광수	연애	국가	국가
윤리	윤리	윤리	논리	국민	윤리	서사	국가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정치	논리	논리	가족	개인	탈식민	탈식민
소설	정치	정치	국민	미	가족	논리	가족	논리	공동체
정치	소설	국민	가족	가족	탈식민	국가	논리	연애	논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체									
담론	담론	담론	정치						
근대	근대	근대	민족						
민족	민족	민족	근대						
식민지	정치	정치	담론	담론	담론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정치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담론	윤리	윤리	윤리
문화	문화	문화	윤리	윤리	공동체	윤리	담론	담론	담론
욕망	윤리	윤리	문화	문화	윤리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
이데올로기	욕망	이데올로기	공동체	공동체	문화	문화	문화	이데올로기	이광수
윤리	이데올로기	욕망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문화	이데올로기
사랑	사랑	사랑	욕망	타자	타자	타자	이광수	이광수	문화

형성	공동체	공동체	사랑	욕망	욕망	이광수	민중	민중	민중
이광수	이광수	타자	타자	사랑	국가	민중	욕망	욕망	욕망
국민	형성	이광수	이광수	국가	사랑	욕망	타자	사랑	사랑
국가	국민	국가	국가	이광수	이광수	국가	사랑	타자	국가
공동체	국가	형성	형성	형성	민중	사랑	국가	국가	타자
서사	타자	국민	국민	민중	형성	형성	형성	형성	사회
가족	서사	가족	민중	국민	국민	사회	사회	사회	형성
타자	가족	서사	서사	서사	사회	소설	소설	소설	폭력
탈식민	탈식민	민중	가족	청년	소설	국민	폭력	폭력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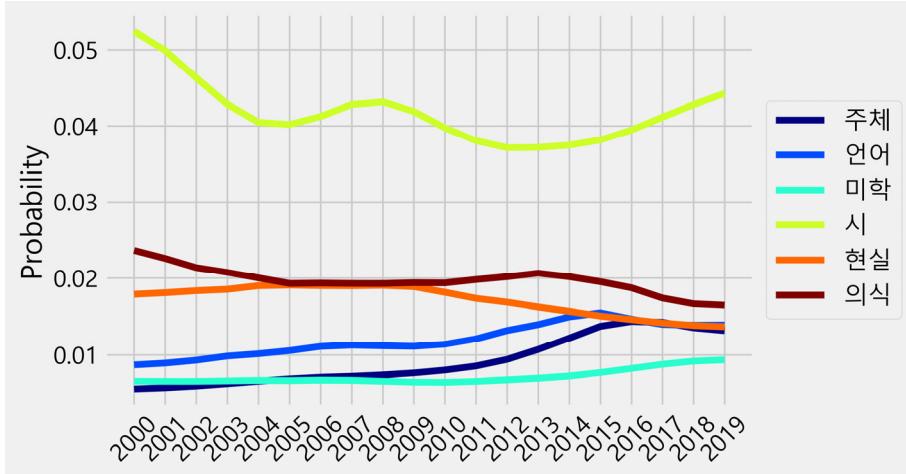


〈그림 7〉 소설주제론과 기타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 단어 사용 변화

〈표 16〉 시주제론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의식									
현실									
인식									
세계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자연	자연	언어	언어	언어	죽음	죽음	생명	생명	생명
언어	언어	자연	자연	자연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생명	생명	죽음	죽음	자연
김수영	김수영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자연	부정
생명	부정	김수영	생명	생명	자연	자연	자연	부정	죽음
비판	비판	생명	시학						
부정	생명	비판	비판	비판	비판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시학	시학	시학	김수영	김수영	주체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미학	미학	미학	미학	미학	의미	미학	미학	미학	미학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미학	의미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주체	김수영	김수영	의미	김수영	사상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존재	존재	존재	김수영	의미	의미
정신	정신	정신	정신	추구	추구	추구	추구	사상	김수영
극복	추구	추구	정신	사유	사상	사상	사상	추구	추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의식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언어	언어	주체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언어	현실	현실	현실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언어	언어	인식	주체	주체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세계	세계	세계	인식	세계	세계	현실	현실
생명	자연	주체	주체	주체	세계	인식	인식	주체	죽음
자연	지향	자연	자연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주체
지향	생명	지향	죽음	자연	자연	자연	자연	자연	자연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미학	미학	미학
죽음	주체	죽음	지향	지향	지향	미학	부정	부정	부정
시학	죽음	생명	생명	시학	시학	시학	시학	시학	시학
주체	시학	시학	시학	생명	미학	지향	지향	지향	지향
비판	미학	존재	존재	존재	생명	생명	생명	생명	생명
미학	비판	미학	미학	미학	존재	존재	존재	존재	비판
사상	존재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비판	존재
존재	의미	의미	추구	추구	추구	김수영	이상	이상	이상
의미	사상	정신	의미	정신	김수영	이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사상	정신	김수영	이상	추구	추구	추구	추구
추구	정신	추구	사상	의미	정신	정신	정신	정신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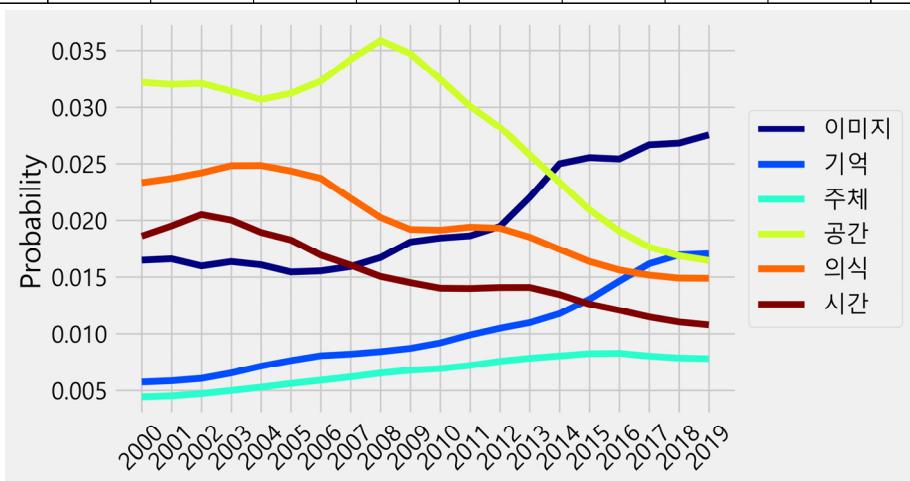


〈그림 8〉 시주제론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 단어 사용 변화

〈표 17〉 시양식론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간									
의식	시	시							
시	시	시	시간	시	시	시	시	의식	의식
시간	시간	시간	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시간	시간							
구조	구조	세계							
세계	세계	구조	구조	자아	자아	자아	자아	자아	자아
서술	자아	자아	자아	자아	구조	구조	구조	구조	의미
자아	서술	서술	서술	의미	의미	의미	의미	구조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서술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고향	서술	인식	인식	인식
반복	반복	반복	인식	인식	인식	인식	기억	기억	기억
상상력	인식	인식	기억	기억	기억	기억	서술	서술	서술
인식	상상력	상상력	반복	지향	지향	지향	지향	주체	주체
지향	지향	지향	지향	반복	반복	주체	주체	지향	지향
기억	기억	기억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반복	반복	반복	반복
상징	상징	상징	상징	주체	주체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은유
화자	화자	화자	화자	상징	상징	상징	상징	상징	상징
시점	기법	주체	주체	화자	현실	현실	현실	은유	상상력
기법	주체	기법	현실	현실	화자	은유	은유	현실	현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간	공간	공간	공간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시	시	시	이미지	공간	시	시	시	시	시
의식	의식	이미지	시	시	공간	공간	공간	기억	기억
이미지	이미지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기억	공간	공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기억	기억	의식	의식	의식
세계	세계	기억	기억	기억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의미	의미	세계							
자아	기억	의미	인식	인식	인식	인식	고향	인식	인식
고향	고향	인식	의미	의미	고향	고향	인식	고향	고향
구조	인식	고향	고향	고향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인식	자아	자아	자아	자아	주체	주체	자아	자아	자아
기억	구조	구조	주체	주체	자아	자아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주체	구조						
서술	지향	지향	지향	은유	은유	은유	은유	은유	은유
지향	서술	서술	은유	지향	지향	지향	지향	반복	반복
은유	은유	은유	서술	반복	반복	반복	반복	지향	지향
반복	상징	반복	상상력	서술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상징	반복	상징	반복	상상력	서술	서술	서술	상징	확장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상징	상징	상징	확장	확장	확장	상징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현실	확장	상징	상징	서술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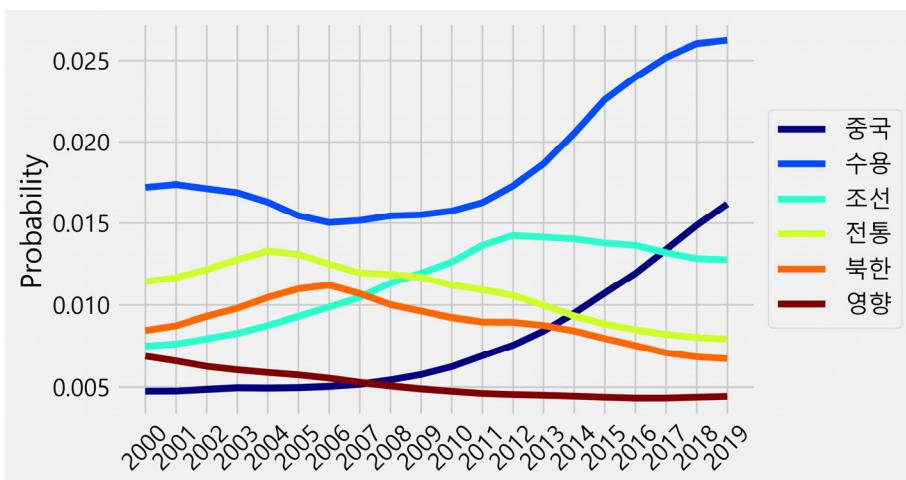


〈그림 9〉 시양식론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

〈표 18〉 비평과 시론, 기타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	시	시	시	민족	민족	시	시	시	민족
수용	수용	민족	민족	시	시	민족	민족	민족	시
민족	민족	수용							
비평									
전통	조선								
비교	비교	비교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조선	전통
작품	창작	북한	비교	창작	창작	창작	조선	창작	창작
창작	작품	창작	창작	비교	조선	조선	창작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작품	작품	조선	비교	작품	형성	형성	형성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작품	작품	비교	작품	비교	비교
운동	운동	조선	조선	의식	형성	형성	비교	작품	작품
형성	형성	형성	형성	형성	의식	의식	논쟁	논쟁	논쟁
조선	조선	운동	운동	논쟁	논쟁	논쟁	의식	의식	근대
영향	논쟁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근대	의식
논쟁	배경	논쟁	논쟁	운동	운동	운동	근대	배경	배경
배경	영향	영향	근대	근대	근대	근대	운동	운동	이념
근대	근대	근대	영향	영향	영향	사회주의	사회주의	서정	일제
정신	정신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영향	일제	사회주의	문예
사상	사회주의	이념	이념	이념	이념	문예	해방	일제	운동
사회주의	사상	정신	정신	일제	일제	해방	문예	이념	중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민족	시	시	수용						
시	민족	민족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수용	수용	수용	민족	민족	민족	민족	민족	비교	중국
비평	비교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비교	비교	중국	비평
전통	전통	비교	비교	비교	비교	조선	중국	민족	민족
창작	비교	전통	작품	작품	중국	중국	조선	조선	조선
비교	창작	작품	전통	창작	작품	근대	근대	근대	근대
북한	작품	창작	창작	중국	근대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형성	형성	형성	형성	전통	창작	창작	형성	형성	형성

작품	북한	북한	근대	근대	형성	형성	창작	문예	문예
논쟁	근대	근대	북한	형성	전통	전통	문예	창작	창작
근대	논쟁	중국	중국	북한	북한	문예	전통	전통	전통
의식	의식	논쟁	의식	문예	문예	북한	논쟁	논쟁	의식
배경	중국	의식	논쟁	의식	의식	의식	의식	의식	논쟁
중국	배경	문예	문예	논쟁	논쟁	논쟁	북한	북한	북한
문예	문예	배경							
일제	일제	일제	일제	일제	비판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이념	이념	운동	운동	비판	활동	비판	비판	비판	비판
운동	운동	활동	활동	활동	일제	운동	운동	운동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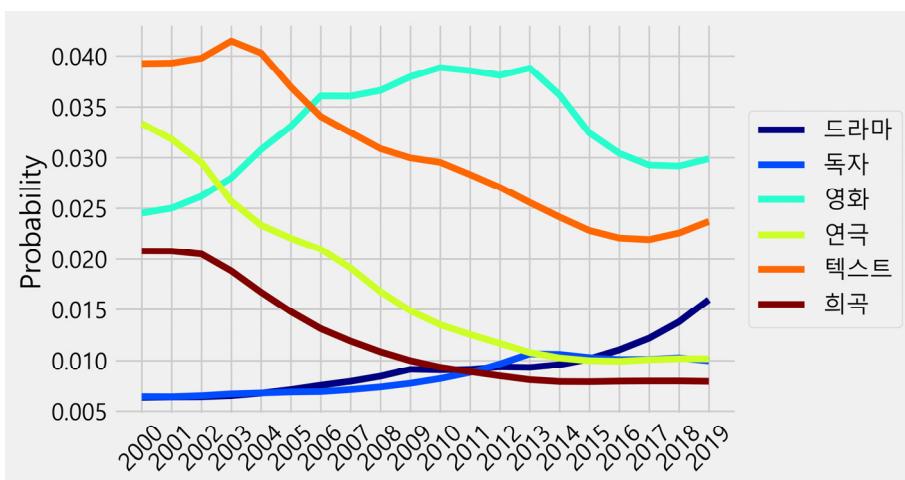


〈그림 10〉 비평과 시론, 기타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

〈표 19〉 연극/영화, 대중문화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연극	연극	서사	서사	영화	영화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서사	서사	연극	영화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구조	영화	영화	연극	연극	연극	연극	연극	연극	극
영화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극	극	극	연극
희곡	희곡	희곡	희곡	극	극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극	극	극	극	희곡	희곡	희곡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변화	변화	매체	매체	희곡	희곡	희곡
변화	변화	변화	매체	매체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드라마
미학	미학	미학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변화
분석	분석	구성	미학	분석	분석	기법	기법	기법	구성
영상	영상	분석	분석	미학	미학	분석	분석	드라마	기법
구성	구성	영상	영상	영상	기법	미학	드라마	분석	분석
기법	기법	기법	기법	기법	영상	영상	미학	독자	게임
독자	독자	독자	독자	독자	드라마	드라마	영상	미학	독자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독자	독자	독자	게임	미학
수용	게임	영상	영상						
대중	대중	사건	사건	사건	사건	게임	수용	수용	수용
사건	사건	대중	놀이	대중	게임	사건	사건	사건	텔레비전
놀이	놀이	놀이	대중	게임	대중	활용	상호	상호	사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영화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서사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서사	서사	서사	서사	서사	텍스트	서사	서사	서사	서사
극	극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구조	구조	극	극	극	극	극	구조	극	극
연극	연극	매체	매체	매체	매체	매체	극	매체	매체
매체	매체	연극	연극	독자	독자	드라마	매체	구조	구조
희곡	드라마	독자	독자	연극	드라마	독자	독자	독자	연극
기법	기법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연극	연극	연극	연극	독자
드라마	희곡	기법							

구성	독자	구성	구성	구성	변화	변화	구성	구성	분석
변화	구성	희곡	변화	변화	구성	구성	희곡	분석	구성
게임	변화	변화	희곡	희곡	분석	희곡	분석	희곡	희곡
독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희곡	분석	변화	변화	변화
분석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인물	인물	인물	인물	문화
미학	미학	사건	인물	인물	게임	1980년대	1980년대	문화	인물
영상	사건	문화	상호	사건	1980년대	문화	문화	1980년대	수용
사건	문화	인물	사건	문화	문화	게임	수용	수용	1980년대
텔레비전	상호	상호	문화	1980년대	사건	사건	사건	사건	활용
상호	1980년대	미학	미학	플롯	플롯	수용	게임	활용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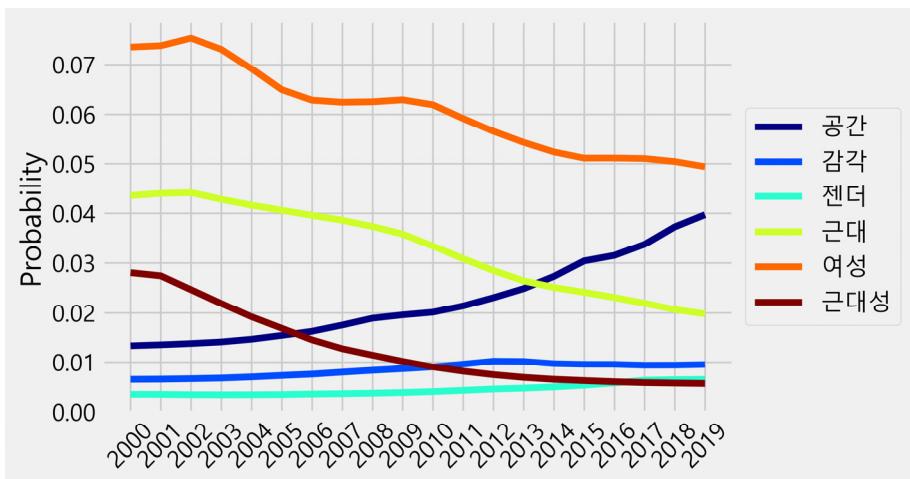


〈그림 11〉 연극/영화, 대중문화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

〈표 20〉 여성문학/젠더 관련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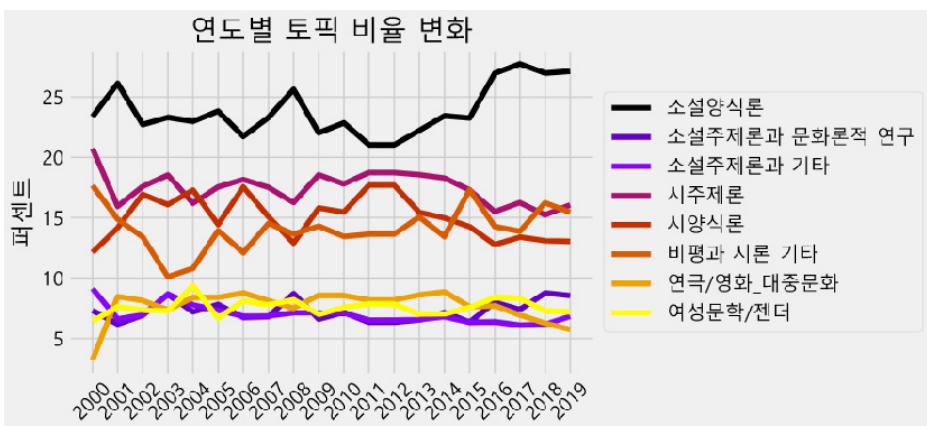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근대									
근대성	근대성	근대성	주체						
주체	주체	주체	도시						
도시	도시	도시	근대성	근대성	근대성	공간	공간	공간	공간
욕망	욕망	욕망	욕망	공간	공간	근대성	몸	몸	몸
몸	몸	공간	공간	욕망	욕망	몸	근대성	욕망	욕망
공간	공간	몸	몸	몸	몸	욕망	욕망	근대성	1960년대
1960년대	남성								
1930년대	1930년대	1930년대	1930년대	신체	신체	신체	남성	글쓰기	
보더니즘	보더니즘	보더니즘	보더니즘	1930년대	1930년대	남성	남성	신체	신체
남성	남성	남성	신체	모더니즘	남성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	근대성
소설	소설	신체	남성	남성	글쓰기	1930년대	1930년대	감각	감각
일상	신체	소설	글쓰기	글쓰기	보더니즘	일상	발견	발견	발견
신체	글쓰기	글쓰기	소설	일상	일상	보더니즘	감각	1930년대	소설
글쓰기	일상	일상	일상	소설	소설	발견	일상	소설	일상
발견	발견	발견	육체	육체	육체	소설	소설	일상	모성
육체	육체	육체	발견	발견	발견	감각	모더니즘	모성	1930년대
여성성	여성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재현	재현
모성	모성	여성성	감각	감각	감각	육체	재현	보더니즘	여성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									
근대	근대	근대	근대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주체	주체	주체	공간	근대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주체
도시	도시	공간	주체	주체	근대	근대	근대	도시	도시
공간	공간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근대	근대
몸	몸	몸	몸	몸	몸	몸	글쓰기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글쓰기	몸	글쓰기	글쓰기
욕망	욕망	욕망	욕망	남성	남성	1960년대	1960년대	몸	몸
신체	신체	남성	남성	글쓰기	글쓰기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신체	감각	욕망	감각	감각	감각	감각	감각

글쓰기	글쓰기	감각	글쓰기	감각	욕망	욕망	욕망	욕망	욕망
감각	감각	글쓰기	신체	신체	신체	신체	신체	소설	소설
근대성	근대성	발견	발견	소설	소설	소설	신체	신체	신체
발견	발견	여성성	소설	발견	발견	발견	발견	발견	체험
소설	소설	소설	여성성	여성성	여성성	체험	체험	체험	발견
모성	모성	근대성	모성	모성	체험	여성성	여성성	여성성	젠더
일상	여성성	모성	근대성	체험	모성	모성	모성	젠더	여성성
여성성	체험	체험	근대성	근대성	인식	젠더	모성	모성	모성
1930년대	일상	일상	인식	인식	인식	근대성	인식	인식	인식
체험	재현	인식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시각	시각



〈그림 12〉 여성문학/젠더 관련 토픽 그룹 연도별 주요단어 사용 변화

### 3) 토픽 상대 비중의 변화와 토픽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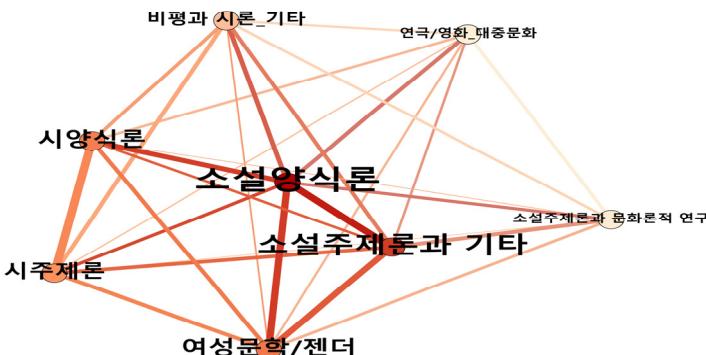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토픽 상대 비율(%)의 변화

도출한 8개의 토픽은 각기 다른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토픽 주요 순위가 변화했듯 토픽 그룹의 상대 비중 또한 변화해왔다. ‘소설 양식론’ 토픽 그룹은 조사 기간 전체 박사학위 중에서 약 25% 내외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소설 분석과 서사론이 계속 연구 주제로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14〉와 같이 8개의 토픽들 사이의 관계 즉 ‘토픽 네트워크’를 시각화해보았다.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에서 노드(node)는 점, 엣지(edge)는 선으로 표현된다. 토픽 사이의 코사인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기반으로 토픽은 점, 토픽 사이의 연결된 정도는 선으로 표현가능하다. 아래 시각화는 네트워크 시각화 툴인 게피(Gephi)<sup>35</sup>를 활용했으며 ‘연결 중심성(Weighted Degree Centrality)<sup>36</sup>’을 기

준으로 하였다. ‘연결 중심성’이란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빈번하게 연결돼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된 정도를 토픽 사이의 유사도로 표현했으므로 어떤 토픽의 연결 중심성이 높다면, 이는 해당 토픽 외의 다른 토픽들과 단어군을 공유(즉 상호참조)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sup>37</sup> 전체 시기 토픽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소설양식론’과 ‘소설주제론과 기타’ 토픽이 다른 토픽과의 연결성이 높아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했다. 이는 해당 두 토픽이 다른 토픽들을 연결해주거나 다른 토픽군과 키워드들을 더 많이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림 14〉 토픽 네트워크 시각화(전체 시기)

35 <https://gephi.org/>

36 <https://en.wikipedia.org/wiki/Centrality>

37 연결 중앙성이 높을수록 점은 붉고 크기가 커지며, 점의 라벨(토픽 이름) 또한 크기가 비례가 커지게 설정하였다. 또한 선은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굵게 그리고 붉은색을 진하게 표현하였다.

〈표 21〉 시기별 토픽 연결중심성과 순위

토픽	토픽 그룹의 연평균 (2000~2019) 비중	전체 시기 연결 중심성(순위)	2000년대 연결 중심성(순위)	2010년대 연결 중심성(순위)
소설양식론	23.88%	2.57(1)	4.64(1)	4.5(2)
소설주제론과 기타	6.99%	2.34(2)	4.08(2)	4.63(1)
여성문학/젠더	7.60%	2.12(3)	3.99(4)	4.28(3)
시양식론	15.01%	2.09(4)	4.02(3)	4.19(4)
시주제론	17.48%	2.02(5)	3.98(5)	4.06(5)
비평과 시론_기타	14.09%	1.78(6)	3.64(6)	4.05(6)
소설주제론과 문화론적 연구	7.28%	1.54(7)	3.52(8)	3.6(7)
연극/영화_대중문화 연구	7.68%	1.52(8)	3.53(7)	3.52(8)

이를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의 소설(사) 연구의 중심성을 확인해볼 수 있고, 또한 소설사 연구와 문화론적 연구가 맺는 관련도 다시 알 수 있다. 양자가 긴한 관계를 갖는 데 비해, 그래프에서 보듯 문화론적 연구와 시 연구 사이는 멀다. 또 ‘연극/영화 대중문화 연구’도 시 연구와 연관성이 약하다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아래 표는 각 토픽 그룹의 상대 비중과 중심성 지수다. ‘소설주제론과 기타’ ‘여성문학/젠더’ 그룹은 전체에서의 비중(〈그림 13〉)이 약 7% 내외에 불과하지만 연결 중심성의 순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토픽 그룹이 한국 현대문학 박사 연구에서 다른 주제들과 연결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시양식론’, ‘시주제론’은 각각 15.01%와 17.48%의 토픽 비율을 기록했지만 연결 중심성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시 관련 연구가 전체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주제와의 연결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장에서의 시 연구가 가진 역할을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잘라 비교해보았을 때 ‘소설주제론과 기타’, ‘여성문학/젠더 연구’, ‘소설주제론과 문화론적 연구’ 토픽 그룹들은 순위가 상승했다. 이 그룹의 단어들을 사용한 연구가 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화다. 반면 2000년대에 비하여 2010년대에 ‘소설양식론’과 ‘시양식론’ 등은 비중이 다소 줄었다.

#### 4. 새로운 현대문학(사) 연구의 지향과 가능성

##### 1) 문화론적 연구의 향배

문화론적 연구가 지난 20여년 현대문학 연구의 두드러진 ‘변화’의 주요 동인이었다 생각한다. 물론 문화론적 한국 문학사 연구는 ‘단일한’ 경향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경계의 교란을 견디지 못하며, 또한 문학의 경계 역시 장르 분할의 관습에만 종속시키는” 태도를 넘고, “배제의 체계로서의” 근대 한국 문학사를 넘어서 “복수의 문학사, 네트워크로서의 문학사, 아래로부터의 문학사, 비선형적 시간의 문학사, 트랜스내셔널 문학사 등”을 향해 나아가자는<sup>38</sup> 복합적인 문학사 연구의 지향이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2010년대에도 문화론적 한국 문학사 연구는 적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생성했다. 200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38 천정환 · 소영현 · 임태훈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한국 현대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문화제도, 검열, 미디어, 재매개, 독서문화 등에 관한 연구는 대상 시대의 범위를 확장하여 1950~60년대는 물론, 이제는 1980~1990년대까지 이르렀다. 이는 문화론적 연구가 한국 현대문학의 전 범위에 걸치며 동시 대성을 띠게 됨을 의미한다.<sup>39</sup> 또한 문화론적 연구는 문학사와 문화정치 사안에서 ‘민중’과 타자들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문학문화의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제고하자는 노력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중지성과 교양의 형성 및 전개, 1970~90년대 노동과 지성의 관계, 노동자·민중의 지성과 민중문화·민중문학 자체, 1980~90년대 노동자 문화와 학생운동의 관계, 노동자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 386세대 지식인의 계급성·민중성 문제 등이 새로운 연구 주제가 돼 왔다.<sup>40</sup>

이번 연구에서 저자들은 두 갈래로 문화론적 연구의 비중을 가늠해 보려했다. 우선 전체 데이터 중에서 지성사, 문화제도, 독서·독자, 출판문화 등 문화론적 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논문을 일일이 꼽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론적 연구는 경향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5년 사이에 가장 많아져 2014년에 문화론적 경향의 연구는 전체 학위논문 중 약 26%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 주요 주제는 ‘로컬리티’, ‘미디어’, ‘다문화’, ‘스토리텔링’, ‘장르문학’ 등 다양했다. 다른 한편으로 ‘주제 중심 분류’에서 ‘대중서사연구’ ‘문화사 연구’ ‘문학문화 연구’ ‘민중문학\_노동문화 연구’ ‘독자, 독서 연구’ ‘게임과 뉴미디어 연구’ 등이 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비중을 계산해보았다.

39 천정환, 「2019 한국 문화연구, 현황과 과제」, 『안과 밖』 46, 영미문학연구회, 2019.

40 김예림, 김원, 이해령, 장성규, 김성환, 김대성, 한영인, 천정환, 배하은 등의 많은 민중 문학·노동문화 관련 논문이 나와 하나의 경향을 만들었다. 상세 서지는 생략.

이들은 전체 연구 대상 박사논문에서 10~15%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소설주제론’이나 ‘비교문학’, 그리고 ‘여성문학\_젠더 연구’ 등에서 문화론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약 박사논문 기준 약 20% 정도의 비중이 있음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특히 크게 부각된 주제는 1960~70년대 문학·문화, 해방 이후부터의 번역 문학문화, 여성문학과 폐미니즘 관점의 문학사 재해석, 민중문학·노동문학, 그리고 냉전문화사 등이다.<sup>41</sup> 이들은 각각 한국 현대문학사 서술의 조건을 발본적으로 묻는 시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론적 연구와 친연성을 지닌다. 즉 이는 일국적이고 남성·엘리트 중심적이며, 물신주의적 문학사 연구와 서술을 넘어서는 해체와 재구성의 구체적 계기들이다.

한편 문화론적 연구는 문학사나 현실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많은 접점을 갖는다. 양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오늘날 한국 문학사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화론적 문학사나 현실 문화연구에 비하면 문학사 연구는 의식적 기획이나 이념이 약하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일상사·미시사·생활사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고 이후 지성사(지식사), 냉전문화사, 독서사, 대중문화사 연구는 각각 활발해졌으나 이들이 전체로서 실체 있는 ‘문화사’로 뭉이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이 그 경향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한국 근대 문학사 연구는 식민지근대성 연구를 주요

---

41 한국학술지인용색인정보(KCI, <https://www.kci.go.kr>)에 의하면 ‘번역’과 ‘여성’ ‘폐미니즘’은 최근 5년 사이의 ‘한국 어문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키워드로 부상했다.

한 소재 또는 매체로 삼아왔으나 이후 풍속론 지향의 문학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침체해졌다. ‘OO의 탄생’ ‘XX의 발견’ 등과 같은 식민지근대성의 성립과 연관된 탐구는 2010년대에 들며 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는 개화계몽기와 식민지 시기 문학사 연구 전반의 비중이 상대적 크게 줄어들고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면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관심의 중심이 이동했던 사실과 연관 있다. 둘째, 그럼에도 새로운 문학사 연구의 방법이나 미개척 소재들이 개척되고 있으며 성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냉전문화, 대중문화, 젠더문화의 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고 북한 문학사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새로운 관심사다. 문학사는 ‘디지털 인문학’과 조우하거나 새로운 소재 영역으로 진입하기 쉽고 대중문화 사는 후속세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영역이다. 문학사 연구는 축적이 필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sup>42</sup> 둘째, 문학사를 의식적으로 다루거나 전공하는 독자적인 제도적 틀이 없다. 마지막으로 문학사를 생산하는 제도적 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HK 사업 등 국책 연구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인 학과 체계나 학제를 넘어 간학제적 ‘문화사’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량의 연구 성과를 내놓게 하지만, ‘강요된 학제간’ 연구 또는 ‘위로부터의 연구’ 같은 의미를 갖기에 다른 힘에 의한 종합이 필요하다.

---

42 천정환,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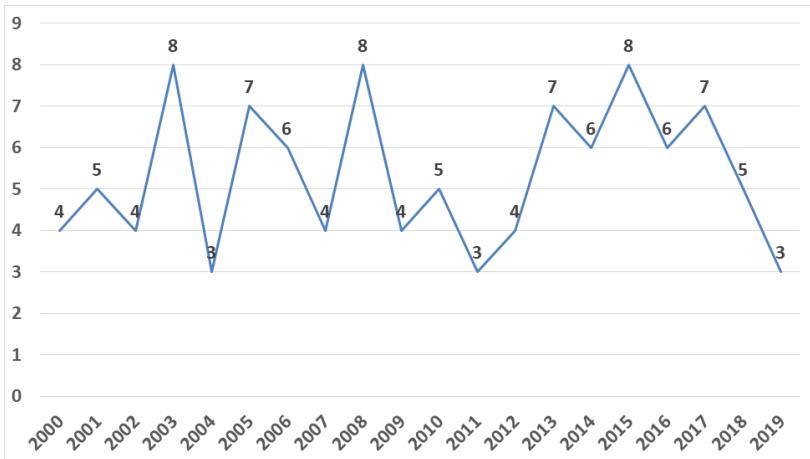
## 2) 여성문학 연구와 문학사

앞에서 언급한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20년간 ‘여성문학\_젠더’ 관련 연구 논문 107편을 추출해보았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특정 여성 소설가·시인을 주로 다룬 작가론류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작가나 문학적 현상을 폐미니즘적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한 연구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0년대의 여성 작가론 연구에서 가장 자주 호명된 문인은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등이었고 여성문학 연구에서도 작가론의 방법의 비중은 컸다.

〈그림 15〉에서 보듯 연도별 폐미니즘 관련 문학 연구의 증감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2015년 이후의 ‘폐미니즘 리부트’의 영향도 적어도 박사논문 발표에서는 아직은 평가할 근거가 없다. 이같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여성문학 및 젠더 연구가 가진 제도 속에서 가진 양가적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럼에도 변화의 동인은 분명해보인다. 현재 위 〈표 1〉에서 보듯 현재 ‘국어·국문학’ 여성 연구자의 비율은 석사 졸업자의 81.9%, 박사 졸업자의 70.2%에 달한다.(2018~19년 기준) 여성 작가, 여성 지식인, 여성 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도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학생과 깊은 층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폐미니즘 붐은 학계 밖에서도 강력하고 새로운 독서와 지식 문화를 만들어냈다.<sup>43</sup> 『문학을 부수는 문

43 정고은, 「2015~2016년 폐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 22,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7; 허윤, 「폐미니즘 대중서 시장과 브랜드화」,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화학회, 2017 등을 참조



〈그림 15〉 연도별 여성문학(젠더) 연구 논문 개수

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2018, 민음사) 등이 이런 경향을 종합하고 새로운 계기점을 만들고 있다 보인다. 또한 단지 가부장제 비판이나 ‘여성의 관점’만이 아니라, 그것에 절합된 확장된 연구의 성과가 ‘비판’을 대자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 이런 책은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이며 ‘대안 문학사’의 한 본보기로서 문학사의 주체·제도·텍스트·양식 등에 관한 서로 다른 방향의 해석 벡터가 어떻게 합력/합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과 학계의 ‘제도’는 이같은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대학에서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어쨌든 ‘문학(사)’의 경계역을 유연하게 하고 민족주의와 엘리트주의, 남성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한국문학사 연구는 계속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별 문학사 예컨대 민중 문학사, 여성 문학사, 문화

제도로서의 문학사, 교양과 지식으로서의 문학사는 더 써져야 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44</sup>

### 3) 현대문학 연구의 새 연구 영역과 제도적 과제

‘국어국문학(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현대 문학 연구는 어떤 내용적·제도적 변화를 맞게 될까?

‘한국—현대—문학—연구’는 서로 모순되거나 길항하는 두 힘에 의해 구성되고 전체가 되어왔다. 두 힘이란 아카데미즘과 당대성이다. 태생부터 그랬던 듯하다. 알다시피 해방기에 다시 출발한 근대 대학제도의 한 영역으로서의 ‘국어국문학’에서 현대문학 연구가 아카데미즘으로 등재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대문학 연구 특유의 당대성과 비평과의 혼종성이 아카데미즘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간주됐기 때문이다.<sup>45</sup> 다시 말해 한국 ‘현대문학’

44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문학과사회 하이픈—메타—문학사」, 『문학과사회』 125(봄), 문학과지성사, 2019에서 마련된 ‘한국 문학사 특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조정환, 차승기, 김정환, 이광호, 이해령, 김형중, 손유경 등에 의해 한국 문학사의 이념과 그 재서술의 과제를 물었다. 황호덕에 의하면 이 기획의 다기한 논의들은 “문학사로부터 텍스트를 해방하여 지금 여기에서 대화하는, 초혼(招魂)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다른’ 문학사가 가능하다는 것, 문학 제도와 젠더 정치의 가장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변형되어온 통치성의 계보와 근간에 접근하는 문학사와 글쓰기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리라는 것, 그 시간 그 분위기로 들어가 함께 ‘절망에 동참하며 감당하는 자기반성과 성찰’, 역사적 침잠이 있을 때 시대의 연속과 단절이 보이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요청은 텍스트를 해방하여 과거의 잠재성이 현재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자”(황호덕, 「멜랑콜리 이후의 중동태들」, 다시 문학사 병원에서 메타문학사 전후, 문학의 역사철학인가 다른 문학사들인가, 『문학과사회』 126(여름), 문학과지성사, 2019.5, 290 ~291쪽)는 것에서 ‘공통감각’을 형성하고 있다.

45 관련한 회고는 김윤식, 『백철 연구』(2008) 등을 참조.

연구의 한쪽 영역은 고담적인 아카데미즘의 자력에, 다른 한쪽의 영역은 늘 유동하는 ‘현실’의 자장에 이끌린다. 현대문학 연구는 학제 속에서의 연구이기에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가 있는 자율적 아카데미즘(academism)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현대문학 연구는 항상 ‘현실’과 접촉하고 밀접한 연관을 지닐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현대’는 근대(modern)만이 아니라 당대적인 것(the contemporary)의 의미를 갖기에, ‘현실’에 개입하고 늘 비평정신을 가동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문화론적 연구는 바로 이같은 정신을 대변하는 주요 요소였다. 문학이 문화연구의 발판 또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친연성과 포괄성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이후’ 문화정치의 과제를 현대문학 연구가 감당해야 했을 때 ‘문화연구’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sup>46</sup> 디지털 전환(또는 기술적 전환)은 주요한 변수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6년의 알파고 돌풍 아래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포스트휴먼의 문제가 제시되고 디지털 문명과 과학기술의 문제가 부상했다. 그래서 새삼 과학기술이 근대성의 형성·전개에서 본질 구성적 역할을 해왔으며, 또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적·문화적 힘이라는 사실이 (재)발견되고 있다. 근대문학과 과학, SF, ‘기계비평’과 ‘테크노컬쳐론’ 같은 새로운 연구와 교육 분야가 출현하고 급속하게 관심을 끌고 있다.<sup>47</sup> 이같은 ‘테크놀로지적 전회’

46 『문화과학』 81호(2015.봄)의 특집 ‘문화연구의 종말’ 등을 참고.

47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관련 수업과 최근에 발간된 이영준, 『기계비평』(2019), 임태훈 외 『기계비평(들)』(2019) 같은 논저를 참고.

는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 인문학 특유의 무지·무관심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이제 한국의 대학과 사회에는 ‘문과 대 이과’라는 이원대립의 ‘두 문화(Two Cultures)’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물처럼 비대해져가는 반지성주의와 ‘먹고사니즘적’ 기술 중심주의가 인문·사회과학을 압도하는 형국이다.<sup>48</sup> 테크노 디스토피아의 상상력은 오래된 것이나 포스트휴먼의 시대와 인류세가 재차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인문학과 첨단과학의 결합적 사고와 상상력”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선에 올라서서 4차 산업 혁명의 실행 양상을 정확히 조망하고 관찰해 적색 신호와 청색 신호를 시의적절히 발령하고, 전문적 평가와 진로 모색을 주도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실천”<sup>49</sup>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적·간학제적 문화연구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데올로기·헤게모니·문화정치라는 문화연구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주제는 포스트식민주의와 젠더 연구, 미디어와 대중문화, 문학과 영화예술, 정동과 몸 같은 영역과 결합해왔다. 이제 정치경제와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문화연구와 더 복잡하고 강한 결합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문화연구는 ‘이데올로기 비판’이 빠지기 쉬운 상투성이나 환원성을 넘는 현실적 깊이 되어야 하고 경제·과학기술·도시 등의 문제에서 실천적 현실 개입의 다양한 부면을 창출해야 한다.<sup>50</sup> 한국문학 연구는 앞으로도 이런 과제들과 결합·추종·자극의 관계에 놓일 것이다.

48 「‘문과총’·‘문례기’…대학가 인문학 비하 ‘고삐 없는 질주」, 『한겨레』 2019.3.20.

49 송호근, 「창간사—문명·풍경·천명」, 포스텍 융합문명원, 『문명과 경계』 장간호, 2018.12, 8쪽.

50 문화연구의 현재에 대한 총괄적 정리는 최근 『문화/과학』 100호 기념 특집호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편 『문화론의 도래와 파장—『문화/과학』 이론 선집』, 문화과학사, 2019년 11월 등을 참조.

## 5. 결론—남은 과제

이 논문에서의 분석들 중 일부는 시론적 의미를 지닌다. 일반 분석에서 한국 현대문학 연구를 33개 주제로 나눈 것이라든가, 토픽 분석과 키워드 사용의 변량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설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이번 논문 준비를 통해 데이터 연구의 가능성과 난점을 동시에 맛보았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 역량과 해석·주제 구성의 능력의 양자가 다 중요하며,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디지털인문학의 방법은 생산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컨대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연구의 지형 변화는 해외 한국학의 변화와 결부된 것이며 동시에 인접학문 분야와의 교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확장+연결하면 한국문학 연구사가 지난 초국성과 함께 지성사·문화사의 의미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학 박사논문 데이터 분석 결과 자체에 대해 두어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한다. 첫째, 현대문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문학·문화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의 감소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어느 토픽 군에서나 ‘근대’는 중요한 단어였지만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개화기~식민지 시대는 물론 1950~60년대 연구에서도 ‘근대(성)’ 연구는 핵심이었지만, 앞으로 1970~90년대 연구가 더 활성화된다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흔히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비평)의 대체물로서의 근대성(연구)가 현대문학 연구가 기대온 일종의 대서사였다는 평

가가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체물은 무엇이 될 것인가? 더불어 공간(성)·장소(성) 같은 연구주제의 활성화는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한국 문학의 경계 문제 또는 한류 등을 통해 더 강화될 경향일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유학생과 소위 ‘K-콘텐츠’ ‘K-문화’의 2000년대와 다른 차원에서 ‘탈민족(국가)주의’를 현대 문학/문화 연구에 실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현대문학 분야 내부에 차이와 균열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시 연구와 소설 연구의 차이며, 또한 제도의 문제(대학 및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정체성 문제와 관계 깊다. 시 연구는 현재와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또 계속 텍스트 분석과 작가론에 주로 정향될 것인가? 이미 현대문학 박사 학위자 배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어쩌면 ‘뻔한’ 사실과 2000~19년대의 박사학위 논문도 20여 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맞닥뜨린 외적 조건들 중 관건적인 것은 대학의 변화와 연구자 문화다. 한국 인문학 전반과 대학 자체의 척박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병진되지 않는 한, ‘위기’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 새로운 세대 연구자 네트워크의 형성과 학회 체계의 변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sup>51</sup>

---

<sup>51</sup> 이 글의 초안 일부를 경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표했을 때 토론자인 대구대 국문학과의 양진오 교수께서 이런 점을 일깨워주었다. 학회 체계 변화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지식공유연대 <https://knowledgecommoning.org>)의 논의와 활동을 참고.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RISS(<http://www.riss.kr>) 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소재 2000~2019년  
에 간행된 한국 현대문학 박사 학위 서지 자료  
<https://github.com/ByungjunKim/DDMKL>(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및 파이썬  
코드 설명링크)

### 2. 논문

- 권창규, 「문학 제도의 경계와 자본의 월경」, 『현대문학의 연구』 5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 김병준·전봉관·이원재, 「비평 언어의 변동—문예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995~2015」, 『현대문학의 연구』 6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 김윤식, 「내가 살아온 이상 문학—『이상 연구』에서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까지」, 『한국  
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 김주현, 「이상 문학 연구와 한국문학의 현대성」, 『국제언어문화』 19, 국제언어문화회, 2009.
- 문화과사회 편집동인, 「문화과사회 하이픈—메타—문화사」, 『문화과사회』 125(봄), 문학  
과지성사, 2019.
- 박지영, 「한국 현대시 연구의 성과와 전망—“운명”과 “혁명”, 왜, 아직도 “임화”와 “김수  
영”인가?」, 『津橋語文研究』 32, 반교언문학회, 2012.
- 박현호, 「문화史’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우리 시대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 대한 어떤 소  
회」,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
- 배지연, 「최인훈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6.
- 석형락, 「1930년대 작가론의 전개 과정 연구—카프제열 작가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9.
- 석형락, 「근대문단 형성기 작고 작가 애도문(哀悼文) 연구—한국근대작가론의 형성 과정  
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성은혜, 「문학교육에서 작가론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28, 고려대 한국어문  
교육연구소, 2019.

- 송호근, 「창간사—문명·풍경·천명」, 『문명과 경계』 창간호, 포스텍 융합문명원, 2018.
- 이동연, 「문화연구의 종말과 생성—비판이론과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1」, 『문화/과학』 81(봄), 문화과학사, 2015.
- 이원재·김병준·전봉관, 「작가-비평가 관계와 비평가의 구조적 위치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2010~2015」,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8.
- 전봉관·김병준·이원재,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정고은, 「2015~2016년 폐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 2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 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조연현과 『현대문학』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10.
- 천정환, 「2019 한국 문학연구, 현황과 과제」, 『안과 밖』 46, 영미문학연구회, 2019.
- 최윤경, 「<화두>에 나타난 근대성 비판과 소설 형식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8.
-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 허윤, 「폐미니즘 대중서 시장과 브랜드화」,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 홍옹기, 「1960년대 문학과 지식인 소설의 양상 연구—최인훈·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박사논문, 2013.
- 황호덕, 「멜랑콜리 이후의 중동태들, 다시 문학사 병원에서 메티문학사 전후, 문학의 역사 철학인가 다른 문학사들인가」, 『문학과 사회』 126(여름), 문학과지성사, 2019.
-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2003.
- Blei, David M., and John D. Lafferty, “Dynamic topic models.”,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CM., 2006.

### 3. 단행본

- 김윤식, 『백철 연구』, 소명출판, 2008.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편, 『문화/과학』 100, 문화과학사, 2019.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편, 『문화론의 도래와 파장—『문화/과학』 이론 선집』, 문화과학사, 2019.
- 백두현 외,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이영준, 『기계비평』, 워크룸프레스, 2019.

이재연 · 송인재 외,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전치형 외, 『기계비평들』, 워크룸프레스, 2019.  
천정환 · 소영현 · 임태훈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한국 현대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 4. 기타

<https://en.wikipedia.org/wiki/Centrality>(위키피디아 ‘중심성’)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topic\\_model](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topic_model)(검색엔진 ‘동적 토픽 모델링’ 혹은 ‘시계열 토픽 모델링’)  
<https://gephi.org/>(네트워크 시각화 툴 게피 웹사이트)  
<https://radimrehurek.com/gensim/>(토픽 모델링 파이썬 패키지)  
<https://github.com/llefebure/un-general-debates>(시계열 토픽모델링 시각화 참고 코드)  
<https://github.com/kakao/khaiii>(카카오에서 개발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https://kess.kedi.re.kr>(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career.go.kr>(커리어넷)  
최민숙, 「중국과 동유럽 · 남미 독일어문학이 눈부시게 성장했을 때—제13회 세계독어독문학회(IVG)에 다녀와서」, 『교수신문』, 2015.09.16.  
「‘문과총’ · ‘문례기’…대학가 인문학 비하·고삐 없는 질주」, 『한겨례』, 2019.3.20, 등 신문 · 잡지 기사(상세 목록 생략)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2000~2019) 진행된 한국 현대문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 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의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를 분석·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전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RISS와 국회도서관에서 논문의 제목, 목차, 초록, 출판연도, 저자 등의 사항을 크롤링하여 기술적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명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과 시계열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2000~19년 사이 현대문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이 20여 개 주요 대학(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배출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현대문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작가론·작품론과 시(인) 연구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문화론, 비교문학, 폐미니즘에 근거한 연구들은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현대문학 학술장 내부에 있는 몇 가지 차이와 균열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는 키워드와 토픽 분석을 통해서 2000년대의 박사논문에는 한국 문학의 근대(성)을 규명하는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의 사용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체 한국 현대문학 토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 연구에서 그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처럼 디지털인문학의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 뿐 아니라 향후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제도적·내용적 전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핵심어 : 디지털 한국어문학, 한국 현대문학 연구 동향, 문화론적 연구, 김수영

## :: Summary

#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Data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0 throughout 2019

Kim, Byung-jun, Cheon, Jung-hwa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y investigating the bibliography data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area over the past 20 years.(2000~2019) To this end, first and foremost, a data collection survey of the doctoral dissertations was carried out by data-crawling bibliography such as titles, tables of contents, abstracts, publication years, and authors from the two public DB platforms—RIS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s. Additionally, we examined keywords and attempted dynamic topic modeling by extracting nouns with a Korean morphological analyzer.

This study shows that most researchers in the real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earned their doctoral degrees from about twenty topnotch universities(*mostly located in Seoul or the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past 20 years and that the number of dissertations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since the 2010s. It is also found that traditional research themes such as studies on writers or poets(*authorship*) and studies on novel works or poetry still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However, it is notable that new types of studies including cultural theories, comparative literature, and feminism have been increasingly visib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cademia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egan to fissure, thereby gaining differences and diversities. This study has also found that the use of words revolving mainly around modernity of Korean literature has declined in the 2000s' doctoral dissertations, chiefly based on keyword and topic analysis. Moreover, such changes are highlighted in researches on novels, which has been the most popular topic and theme in the fiel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rough such a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his study aims to discuss not only the current research trends but also the changes or prospect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both terms of forms and contents.

Keywords : Digital Korean languages and literature, Research trend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Cultural studies, Cultural theories, Kim Su—yeong

이 논문은 2020년 8월 15일에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20일에 심사를 거쳐 2020년 10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